

창간호

# A·S·C·O·M

2020.05

## 富平文化

- 부평, 한국대중음악의 중심지
- 세계 최초 음악길, '부평대중음악둘레길'
- ASCOM BLUES FESTIVAL



그림 조성정(2019)

## ‘ASCOM’ 부평문화 창간호 부처

부평에 무슨 할 이야기가 많아서 인천문화도 아니고, 왜 굳이 ‘ASCOM:부평문화’ 이름으로 잡지를 만들어내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창간사가 되지 않을까 싶다. 돈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구 명예를 거머쥐는 일도 아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 시대에 종이로 만든 잡지를 만들겠다고 덤비는 것이 가당치도 않을 일이다. 믹스 커피를 줄 창 마신다. 명징하게 말하면, 부평문화는 인천문화와 다른 색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의 발견과 발굴해서 시작됐다.

ASCOM은 부평에 주둔한 미군수지원사령부(ARMY SERVICE COMMAND) 약칭이다. 근대 이후에 부평문화는 ASCOM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근대 이후 부평문화는 ASCOM과 일꾼이다. 때려야 뭉 수 없는 관계인 셈이다.

특히 부평문화에는 한국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지점에서 늘 첨단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근대현대기를 맞이하면서 부평문화는 자기 이름을 갖지 못했다. 조선시대까지 부평평야를 기반으로 부평문화는 늘 선형적으로 존재해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부평평화는 온데 간데 없이 일본 육군 조병창이라는 군수물자를 생산 도시로 변모하더니, 1945년 이후에는 점령군으로 들어 온 미군들이 그 자리에 한반도 최대 규모 미군기지 부평 애스컴시티를 구축하면서 부평이라는 지명조차 희미해지는 시기를 맞이했지만, 늘 문화 쪽에서는 첨단성을 유지해 왔다.

그 첨단성이 무엇이뇨 하면, 대중음악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즈와 블루스 리듬이 부평에서부터 전파되고 확산되어서, 1970년대 한국적 리듬을 만들어내는 문화 역량이 비축된 데가 부평으로 규정할 수 있다.

문화의 최첨단 도시로서 부평이 자리잡게 되는 것이고, 이는 한국의 여는 도시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유일성이었다. 그리고, 행정구역으로 인천에 편입되었지만, 이런 최첨단의 문화를 간직한 부평이기에 인천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독특한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부평문화가 지닌 유일성과 유별성과 그 가치로움에 대해서는 이른바 부평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ASCOM 부평문화’ 를 당돌하게 창간하기에 이르렀다. ‘ASCOM 부평문화’를 통해서 부평이 지닌 최첨단의 문화 가치를 부평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천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이나마 깨닫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창간함을 밝힌다. 성원과 지지를 바란다.

2020. 3. 3

발행인 이강열

※ 토지: ‘ASCOM 부평문화’ 발행이 코로나19이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기면서 많이 늦춰졌습니다. 필진과 독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2020. 5. 27)  
※ 부평 신촌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드림보트클럽 건물이 2020년 5월 31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젠 사진과 기억으로 드림보트는 우리에게 덩그러니 남겨졌다.

# CONTENTS

2019 창간호

발간사   이장열(편집주간)	02
만평   박흥열(화백)	03
인터뷰 1   조기평 회장(부평구문화예술인협회)	05
인터뷰 2   양진채 소설가	12
부평문화 1   부평 음악동네를 이야기하다 정유천	14
부평문화 2   '부평 평야', '富平文化圈'의 복원을 바라면서 이장열	15
부평비평 1   부평캠프마켓의역사적기억과희망의Archive 박명식	18
부평비평 2   부평 대중음악둘레길이 이미 있었다! 이장열	31
부평연구   음악도시 부평문화정체성 찾기 정유천	35
부평문예   아파트 한바퀴 1991년 이장열	52
부평대중음악둘레길	63







## 회원들의 권익 옹호와 지위 향상 및 복지증진 위해 노력!

조기평 회장  
부평구 문화예술인 협회

한 해가 저물어가는 따뜻한 주말에 새로 취임한 9대 인천 부평구 문화예술인 협회 조기평(67, 부평동) 회장을 만났다. 조 회장은 서예가로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초대 작가로 수원대 미술대학원 조형예술 학부 서예 학과를 졸업했다. 초대작가 부회장을 역임한 조 회장은 대한민국 제물포 서화 대전 운영위원, 심사위원 등 한·중·일 교류전 참여로 부평구 예술인으로 앞장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부평문화> 웹진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평예술인회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말씀해 주세요.**

모든 면에서 많이 부족한 저를 제9대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상임위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과분한 직책을 맡겨주신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을 어떻게 채워 나갈지 어깨가 무겁고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부평예술인 협회의 위상과 회원들의 권익 옹호와 지위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화해와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평구 문화예술인협회에 대한 소개

부평구 문화예술인협회는 1995.12.16. 창립하여 미술, 서예, 사진, 시각 예술분과와 국악 음악 무용 공연예술 분야로 구분되어 현재 350여 명이 창작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16회째 부평구와 중국 호로다오 시와의 국제문화예술 교류전과 상호 격년제로 방문하여 친분을 쌓는 동시에 국제적인 안목과 부평을 사랑하는 애향심은 물론 다양한 문화 교류 행사를 통하여 부평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 23회째 부평 풍물 대축제 행사에 참여하여 공연과 전시를 통한 주민과 소통의 장이 되고 있고 부평 풍물축제의 품격을 높이는 일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3. 16회째 불우이웃돕기 '사랑 나눔 전'을 개최하여 부평 예술인협회 회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하여 수익금을 모아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구청 사회복지과에 기탁하여 왔습니다.

4. 3회째 부평예술제를 통하여 예술인들의 자부심을 회복하고 재능기부와 지역 주민과 소통하면서 화합하고 부평구가 추진하는 문화도시 지정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민관의 많은 지원과 협조가 요구됩니다.

5. 그밖에 공연분과는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수시로 갖고 있으며 전시분과도 분과별로 정기 전시회를 통하여 부평구민들의 예술적 안목을 높여주고 부담 없이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부평문화에 대해관심과 평소 즐기는 문화생활은?**

예로부터 문화와 예술이 발전하지 않고는 도시가 발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일상생활에 가까워 질 수 있을 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평을 누구든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문화생활은 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주민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있으며 서예에 대한 예술적 매력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부평 문화도시 발전을 위한 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명의 잣대라고 합니다. 또한 문화와 예술적 가치는 이제 돈으로 환산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부평구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구민들의 호응이 없으면 안 될 것이고 또한 주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행정이 받쳐주지 않으면 실패할 것입니다. 주민 모두가 애항심을 갖고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문화 도시로의 발전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부평구 예술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예술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부평 예술인협회 회원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만약 인간이 예술이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사회는



삭막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질 것입니다. 예술인들의 자부심과 긍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예술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문화와 예술이 봄꽃처럼 피어나는 문화도시 부평을 만들어가는 사업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 앞으로의 계획

다른 구에 비해 예산지원이 형편없이 적습니다. 예술이 창작 활동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부평의 구민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 등등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예술인들 모든 행사를 거의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협회 행사가 있을 때는 이웃 주민들과 손잡고 나오셔서 예술 작품도 감상하고 공연도 즐기면서 응원해 주시면 저희는 더욱더 힘이 나서 부평구민들을 위해 재능 봉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PROFILE

수원대 미술대학원 조형 예술학부 서예 학과 졸업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초대작가  
대한민국 제물포 서화 대전(운영위원, 심사위원, 초대작가회 부회장)  
서울 서도협회 초대작가  
인천 서예협회 초대작가  
인천 서가협회 초대작가  
인천 국민예술협회 초대작가  
한·중 국제문화 교류 전 다수  
한·일 오사카 국제교류전 다수  
부평구 문화예술인회 감사(前)  
인천 부평구 서예인회 회장(前)  
부평 향토 원로 작가회 회장(前)  
수원대 미술대학원 서예학회 회장(前)  
인천 부평구 평생학습 서예 강사  
부평구 축제위원회 위원  
인천 부평구 문화예술인협회 총회장(현재)



## 최근 소설집 '검은 설탕의 시간'을 내놓은 양진채 소설가

양진채 소설가  
'2019 인천 문학 작가' 선정

글. 배천분 편집위원

인천에서 나고 자라고 현재 부평에 사는 양진채(52, 부평4동) 소설가는 2008년 조선일보 신춘문에(단편 '나스카 라인')로 등단한 작가이다. 최근 소설집 '검은 설탕의 시간'을 내놓았다. 2017년 스마트 소설집 '달로 간 자전거' 이후 2년 만에 '검은 설탕의 시간' 소설집을 출간한 것이다. 특히 짧은 소설로 일컬어지는 스마트소설에 기량을 인정받아서 그 방면에 다수의 문학상을 받았다.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로 소설집 '푸른 유리 심장', 장편 소설 '변사 기담'을 발표했다.

이번 소설집에서 양진채 소설가는 단단한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지나간 시간의 기억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 활성화는 '후일담 문학'이 스스로 깊어지는 순간을 찾아내면서 존재의 윤리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가능하게 한다.

양 작가는 "결혼을 하면서 부평에 살기 시작했

으니 어느새 30년이 되어간다. 그런데도 부평하고는 인연이 깊지 않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내 소설 대부분이 인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정작 내가 사는 부평을 아직 소설에 녹여내지 못한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고 부평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병창이나, 토굴, 미군부대 이전, 에스컴 등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부평문화〉 발간에 대한 소견을 들어 보았다.

부평의 문화를 담은 매거진을 발행한다니 기대가 크다. 결국, 내가 발을 딛고 선 땅이 어떤가를 아는 일은 내 존재를 알아가는 일이 될 것이다. 삼산도서관에 상주작가로 7개월간 근무한 적이 있다. 도서관 바로 옆에 굴포천이 있었다. 서둘러 점심을 먹고 그 길을 걸었다. 조금씩 날씨의 변화에 따라 얼음이 녹은 자리에 풀빛이 짙어지는 것을 보고, 하천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이 내 걸을 스칠 때 느껴지는 부



드러움 등이 나를 다독여준다고 생각했다. 지역이란 것처럼 내 삶의 한 부분을 규정한다. 지역이라는 틀로 바라보는 문화, 혹은 문화라는 틀로 바라보는 지역.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부평'의 문화적 특색을 살려낼 수 있어야 매거진에 힘이 실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현재 양 작가의 근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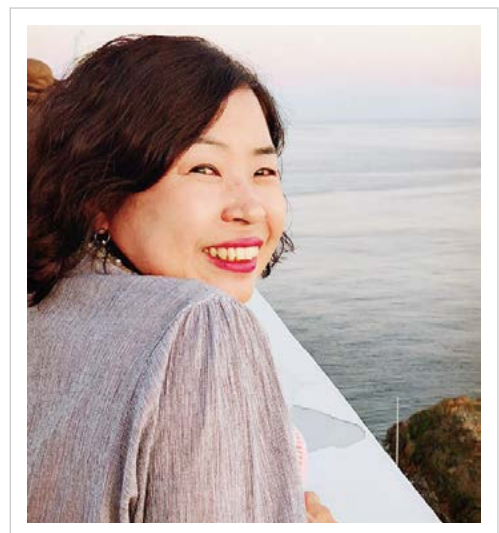
나는 올 한 해 부평이 아니라 동구에 적을 두고 활동했다. 동구문화원인 화도진문화원 사무국장으로서 일하게 되면서부터이다. 동구는 인천에서 가장 작은 땅,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진 원도심이다. 옛 조선인들이 몰려 살았던 곳으로 문화적 인프라 역시 적다. 그런데도 동구에서 문화운동을 하는 것이 적이 즐거웠다. 헌책방을 중심으로 한 배다리가와 있고, 70년대 삶을 재현한 수도국산박물관이 있고, 쇠락한 부두가 있는 동구가 좋았다. 그러면서 한 편으로 부평을 바라보게 되었다. 인구 50만의 도시, 문화재단과 문화원, 박물관이 있고, 풍물축제나 음악 도시로 나아가려는 다양한 움직임도 본다. 또 많은 문화인들이 부평 곳곳에 터를 잡고 일을 하고 있다. 동구에서 보면 부평은 부러운 도시이다. 다만 부평풍물축제가 있기는 하지만 일상적으로 봤을 때 '부평 문화'라고 특색을 지을 만한 것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이왕 '부평문화'의 깃발을 들었으니 큰 그림을 그리고 전망을 갖고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 소설의 주인공의 무대에 대해

문학을 하면서 내가 발을 딛고 선 인천을 들어

다보기 시작했고, 인천은 그 어떤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문화적 자양분을 축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자양분이 숨겨진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조금씩 꺼내 소설로 썼다.

『변사 기담』의 제물포구락부, 자유공원, 월미포격사건, 애관극장, 북성포구, 배다리 등이 개항기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변사인 기담의 삶을 풍성하게 했다. 최근에 발간한 소설집 『검은 설탕의 시간』에 수록된 단편 여러 편도 마찬가지였다. 인천 현대사의 중요한 장면 중 하나인 동일방직 노조 똥물 투척사건의 기억에 붙들린 「애」는 차열하게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건너온 흔적이, 아지트처럼 찾아들던 「북쪽 별을 찾아서」의 북성포구는 내 쓸쓸한 심상과 닮아 있다. 「플러싱의 숨쉬는 돌」에 나오는 5.3민주항쟁 한가운데인 시민회관이나 삼촌의 돌을 찾는 북성포구, 수문통의 버려진 산부인과 태아를 건져가는 늙은 사내를 기억



하는 「부들 사이」, 아버지가 부두에서 검은 설탕을 바지 속에 쓸어 담아와 쏟아내던 장면의 「검은 설탕의 시간」, 「마중」의 자유공원, 「허니문 카」의 송도유원지 등이 그렇다. 그런 기억 속의 시간은 아주 천천히 간다. 늪지도 않는다.

나는 가능하다면 인천을 내 소설에 버무리려 했다. 그리고 이 인천이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다른 도시와 별반 다르지 않게 변해버리는 일만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다. ‘인천다운’ 가치는 무분별한 개발에서 그럴듯한 무언가를 세워놓고 찾을 수 없다. 부평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 『검은 설탕의 시간』 소설집에 대해

소설집 『검은 설탕의 시간』은 이전에 나온 어떤 책보다 각별하다. 내 삶, 내 상처를 건뎌내게 한 소설들이기 때문이다. 부평이라는 지역이 내 소설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부평서초등학교 앞에서 자전거포를 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되었다. 한 사람의 발자취는 어떤 경우든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다. 이번 소설은 그런 흔적을 담았다. 양 작가는 “올해 30년 만에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미추홀도서관 등 인천시 산하 도서관에서 선정한 ‘2019 인천 문학 작가’로 선정되었고, 책을 발간했다. 그 어느 해보다 숨 가쁘게 살아왔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바빠 정작 소설을 못 썼다. 소설을 내 삶의 가장 우위에 두겠다고 다짐했으나 그러지 못하고 있어 늘 마음 한 켠 무겁다.”

### 앞으로의 계획

요즘 나의 관심사는 노동이다. 부평도 공단을 끼고 있는 노동의 도시이다. 부평박물관에서 올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라는 주제로 노동에 관해 전시했다. 나는 『변사 기담』에 이어 두 번째 장편소설로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노동’에 집중할 생각이다. 1970년대 수문동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다양한 모습을 한 축으로, 다른 한 축은 동일방직 똥물 사건을 녹여 ‘노동’ 혹은 ‘노동운동’에 대해 다른 방식의 언어로 써보려고 한다. 내 소설 <애>에 ‘빛나던 시간들은 그렇게 천천히 간다. 그제 상처로 빛나든, 영광으로 빛나든 가슴에 새겨지는 시간은 그렇다. 똑같은 시간은 애초에 없었다’ 라고 썼다.

내 기억 속에서 오랫동안 나를 붙드는 기억들은 내가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빛나는 시간’이다. 아직 부평이 내게 깊숙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애정을 가득 담아 바라보고 있다. 에스컴에서 부르던 노래의 한 소절처럼 어느 날 문득 ‘부평’이 내게도 그렇게 들어오길 바라고 있다. 배천분 취재기자

## 부평문화 1

부평  
음악동네를  
이야기하다인천밴드연합 대표  
정유천

## 신촌 - 찬란했던 클럽거리

나의 어릴 적 기억 속에서 신촌은 참 이상한 동네 이었다.

한국 사람들보다 양키(주한미군)가 더 많아 길거리를 지나가면 한국 말보단 (영어)대는 소리가 더 많이 들렸다. 그리고 동네모습도 부평의 여늬동네와는 많이 달랐다. 온통 영어로 쓰여 있는 간판과 어린 나이에는 알수 없는 이상한 건물들 그래서 신촌은 부평사람인 나도 때론 낯설게 느껴지곤 했다. 어쩌다 신촌에 사는 친구를 따라가면 모를까 혼자서는 결코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신촌은 부평에 ASCOM(미군수지원사령부)이 주둔하게 되며 이로 인해 어마어마한 물질적, 정신적 재화가 쏟아 부어지게 되는데 부평이 비교적 풍요로운 곳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특히 에스컴 정문(GATE1)이 있었던 지금의 부평공원 옆 굴포천주변과 그 근처 공터에 수십 채의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며 '신촌이라는 마을이 생겼다. 이곳은 유흥가가 되어 미군을 상대로 한 향락가 뿐 아니라 현재의 이태원을 상상하게 하는 다양한 업종의 상가들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당시 55보급장은 종업원 1천200명을 고용, 한국 내 단일 부대 중 최고의 인력을 자랑했다하니 부평에 얼마나 많은 미군들이 주둔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부평으로 왔는지 짐작 해볼 만하다.

그리고 에스컴(ASCOM) 영내에는 8075클럽.121클럽.44클럽.76클럽.728클럽 등 미8군 클럽들이 있었는데 이 클럽들은 다시 NCO클럽(하사관클럽) EM클럽(사병클럽)으로 분류 되었으며 이곳에 연주하려면 미8군에서 주관하는 오디션을 거쳐 클래스를 받아야 했다.

오디션을 통해 받은 클래스에 따라 페이(공연료)는 차등으로 지급되었으며 클래스는 전국에 있는 미8군 클럽 어디에서나 통용되었다. 보통 클래스는 AA, A, B, C, D까지 주어졌고 D를 받으면 '드 (DROP)이라 하여 미8군 클럽에서는 연주를 할 수 없었다. 오디션은 보통 6개월이나 때론 3개월 단위로 재심사를 받

아야 했고 오디션은 남영동에 소재한 USIS(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미 공보원)에서 미국인 음악전문가들이 배석하여 직접 심사를 보았다.

미8군 오디션은 연주력, 가창력뿐 아니라 영어발음, 무대매너, 무대소품등까지 심사 대상이었다하니 지금의 오디션 이상으로 까다롭고 엄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엄격한 오디션을 통과해야 출연할 수 있던 미8군 무대에서 활약한 김시스터즈, 김보이즈, 패티김, 이금희, 서수남, 윤복희, 윤항기, 현 미, 한명숙, 임희숙, 최희준, 신중현, 위키리, 펄시스터즈, 조동진, 장미화, 손시향, 옥희, 나애심, 유주용, 이봉조, 김희갑(작곡가, 기타리스트), 김홍탁(서울재즈아카데미원장) 김인배(전 KBS 한국방송 라디오 악단장) 등은 지금까지 가창력과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는 실력과 음악인들이다.

부평은 특이하게도 ASCOM 영내 미8군 클럽에서는 대부분 7~8인조내외의 풀 밴드(풀 밴드는 드럼, 베이스기타, 기타, 키보드 외에 색소폰, 트럼펫, 트롬본등의 브라스악기가 가미된 형태의 밴드임)가 스윙재즈를 주로 연주하였는데 그 이유는 에스캅에 있던 미군부대들이 보병부대 위주로 주둔한 다른 지역과 달리 후송병원이나 항공대와 같은 부대가 주둔하다보니 특성상 미군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화이트칼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군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로 인기 있던 곡은 글렌밀러와 베니굿맨의 음악으로 'Take Five' 'In The Mood' 'Sing Sing Sing' 'American Patrol' 'Little Brown Jug' 등의 스윙재즈 연주곡 이었다.

당시 Rock'N Roll은 서민들의 음악 이었고 스윙재즈는 좀 배운 지식인층이 듣는 음악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 ROCK음악의 대부라고 불리는 신중현씨 자서전을 보면 미8군무대 활동을 꽤나 오래 했음에도 부평에서 음악활동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주로 미군 보병부대가 주둔하였던 의정부나 동두천 클럽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 거로 기록되어 있다.

### 삼릉(三陵) - 음악인들의 마을

일제강점기 일본육군조병창에 군수물자를 납품하던 미쓰비시공업(三菱功業社)에서 근로자들을 위하여 현재 부평2동 주변에 사택을 지어 제공했는데 아직도 부평 토박이들은 이 동네를 삼릉(三陵)이라고 부른다. 마을이름인 삼릉은 미쓰비시의 한자어인 삼릉(三陵)을 뜻 한다. 그리고 마치 줄은 그은 것처럼 지어졌다하여 미쓰비시 사택을 줄 사택이라고 부른다.

당시 연주 할 클럽이 많았던 부평으로 많은 연주자들이 모여들기 시작 했으며 삼릉

은 이런 연주인들이 모여 사는 독특한 형태의 마을을 이루게 된다. 당시 삼부약국앞 (현 동수역3번 출구 주변)에서는 매일 10대 내외의 미군트럭(GMC)들이 연주인들을 부평뿐 아니라 월미도, 문학, 군포 미사일 부대 등과 서울 경기 인근지역으로 출퇴근 시키기 위하여 집결하였고 이곳은 픽업장소가 되었다. 당시 교통상황으로는 출퇴근이 쉽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연주인들은 출퇴근이 용이한 픽업장소가 있는 삼릉으로 모여 들기 시작한다. 그렇게 하여 삼릉은 연주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음악인들의 마을이 된다.

이 당시 삼릉에 거주하며 에스컴에서 연주 활동을 했던 밴드로는 우수봉씨가 이끌던 'HAPPYTIME' 유선준씨가 이끌던 'TOPHAT' 김진해씨가 이끌던 'STARDUST' 고만석단장이 이끌던 경찰악대출신 단체와 'STARLIKE' 'RAINBOW' 등이 있었다.

이러한 독특한 지역의 환경과 영향으로 부평은 많은 대중음악인들을 배출하였으며 현재는 라이브클럽 락캠프를 중심으로 정유천블루스밴드, 거즈, 싸이키문, 나랑, 에스컴 슈퍼밴드, 경인고속도로, 꼬리물기, 예술빙자사기단 등의 밴드들이 활동 중이다.

특히 부평올스타빅밴드는 당시 애스컴 8군 클럽에서 연주되던 스윙재즈를 연주하며 부평의 음악적 정체성을 지켜가는 20인조 빅밴드로 부평음악도시의 커다란 자산이라 할 수 있다.

### 드림보(DREAM BOAT) - 살아있는 전설이 되다

50~70년대 당시 신촌(부평3동)에는 그린도어, 화이트 로즈, 드림보트, 키클럽, 세븐클럽 등 미군을 상대로 하는 클럽이 20여개 이상 생겨나게 되는데 그 수는 용산보다 많았다고 한다. 당시 클럽 중에는 매일 5~7인조 밴드들이 직접 연주하던 클럽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 드림보트와 컨트리 음악을 연주했던 세븐 클럽은 미군장병들이 유난히 좋아했던 거로 유명하다. 이 클럽들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클럽으로 미8군 오디션과 무관하게 클럽주인이 오디션을 보거나 부킹을 해서 밴드를 섭외하였다. 지금은 드림보트(DREAM BOAT)가 있던 자리에 '부일정육식당'이 자리 잡고 있는데 건물 내부는 많이 바뀌었어도 위쪽 옥탑방같은 형태의 건물 상부는 예전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당시 신촌 거리는 클럽(Club)과 바(Bar)가 길가에 줄지어 있었고 거리에 늘어선 클럽에서는 끊임없이 음악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서면서 당시 미국 닉슨 대통령이 추진한 데탕트(Detente), 즉 해빙정책의 분위기가 한국에까지 이어져 주한미군 철수가 전격 이뤄진다.

에스컴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마감한 것은 1973년 6월30일. Camp Grant, Camp Tyler, Camp Harrison, Camp Taylor, Camp Hayes 등이 있었으나 각 부대들이 전국적으로 분산 이전되면서 현재까지 캠프마켓(Camp Market)이 대신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당시 에스컴의 정확한 면적을 현재 캠프마켓(약47만9622㎡)의 5~6배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미군부대가 떠난 자리에 1985년경 '산곡지구' 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우성과 동아, 대림, 경남아파트 등이 줄지어 생기면서 부평은 고층아파트의 시대로 들어섰다.

인천과 서울의 길목에서 중계자 역할을 하던 부평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희망찬 미래를 여는 길은 음악도시로 가는 길 뿐이다. 2016년부터 시작한 문화관광체육부 특화 지역지원사업인 '음악융합도시' 사업이 올해로 4년차로 내년이면 끝난다.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이 다 끝나면 평가를 받겠지만 어떤 겨로가가 나오던 부평구는 자체에 산과 지역주도의 컨트롤타워와 구심체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부평구에서 진행하는 국비 보조사업인 골포천복원사업, 11번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캠프마켓 반환후의 활용은 모두 음악도시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그것만이 각 개 사업의 성공과 미래가 있는 부평을 만들 수 있다.

## 부평문화 2

# ‘부평 평야’, ‘富平文化圈’의 복원을 바라면서

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이장열

‘부평문화’는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면 될 요량인데, 굳이 ‘부평문화권에 권(圈) 자를 달아서 ‘부평문화권은 있는가를 묻는다면 고개를 가우뚱 할 사람은 현재 인천에서 남아 있을까 싶다. 인천이라는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평지역인데, 인천문화도 아니고 부평문화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가 부평이라는 사실에 짐짓이 놀라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부산, 광주 등 광역시 다음의 구 단위 지역에서 이른바 금정문화, 광산문화 따위의 명칭을 들어보지 못한 현실을 살펴본다면 부평문화 라는 용어가 인천문화 터전에서 사그라들지 않고 또렷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학적 문화사적으로도 특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이른바 소지역문화가 이른바 대지역문화와 나란히 존재함이 기한한 것인데도 인천지역, 아닌 부평지역 문화담론 연구자들이 제대로 이 현상의 근원과 뿌리를 찾아 들어가지 못한 데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인천문화와 부평문화가 인천지역에서 나란히 마주서서 부딪히면서 공존하고 있는 것은 일상생활의 대화에서도 늘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인천을 넘어간다”, “부평에 넘어간다”라는 말이 인천에 오래 살아온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배어져 나온 것에서 인천사람 따로 있고, 부평 사람 따로 있다는 소지역간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

이른바 전통시대에서 바다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온 제물포 중심의 인천사람과 땅을 매개로 삶을 살아온 부평(현재, 계양, 서구, 부평, 부천) 사람들과는 처한 환경이 달라서 기질과 정서가 달랐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근거로 삶을 살아온 사람과 땅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 방식은 상당히 차이가 났다는 것은 지리적 환경에 따라 문화 양태도 크게 달랐을 것임을 짐작하게 된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차이가 또렷하게 공존하는 데가 인천의 부평지역이다. 독자적으로 부평지역성을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위적인 행정구역 개편으로 옛 부평이 서구, 계양, 부평으로 나뉘고, 경기도 부천으로 분리되었지만, 오랜 세월 부평 평야를 기반으로 살아오면서 기억되고 축적된 문화성까지 강제적으로 쪼갤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만큼 땅을 기반으로 오랜 세월 부평지역에 정주하면서 삶을 영위한 것의 축적물로서 독자적인 부평문화가 형성되었기에 부평문화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인천문화에 편입되지 않았던 이유일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현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경기도 부천은 부평 평야를 기반으로 형성된 무속문화와 삼산농악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부평지역이 서구, 계양, 부평, 부천으로 분할되면서 땅을 기반으로 형성된 무속신앙의 문화와 삼산농악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광복 이후에는 부평평야에 존재해 왔던 저수지 근처에서 펼쳐진 간간이 무속 문화의 명맥도 부평 평야가 일제의 조병창 기지로 변화하고, 그 땅에는 다시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논농사를 기반으로 형성된 무속 문화 활동은 그 맥이 완전히 끊기고, 옛 흔적과 기억만이 경기도 부천의 어느 박물관에 박제화되어 있을 뿐이다.

삼산농악도 부평 평야를 기반으로 형성된 문화 양태인데,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광복 이후에 완전하게 사라지면서 그 명맥을 이어가기도 버거웠다. 삼산농악의 존재는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부활한 1990년대 이후에 부평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으로 부평풍물대축제로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계양구에는 부평도호부와 부평초등학교가 존재할 정도로 부평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해 왔던 지역인데 문화역사적 근거로서 부평이어야 할 장소가 계양이라는 행정지명을 얻히게 되면서 문화적 불일치를 강요받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옛 부평에 속했던 지금의 서구지역도 부평평야를 매개로 펼쳐지는 부평문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유 완무 선생으로 이어지는 문필활동이 가능하게 된 근거 지점을 찾을 수 있다. 지금껏 현재의 서구에서 형성되고 있는 문화의 근원과 뿌리가 어디인지를 살펴볼 열쇠를 찾지 못해서 서구 지역사 연구가 협소하거나 진행되지 않은 이유도 '부평문화라는 근거에서 서구를 바라보지 않은 탓이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곧 서구에 존재해 왔던 문화 활동은 바다를 기반으로서는 서구에서 존재해 왔던 문필활동을 가늠할 수 없음을 인류문화사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평 평야를 끼고 있는 현재의 경기도 부천에도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수주 변영로와 같은 문인들이 배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터전으로서 부평문화가



엄연히 존재했기에 가능했다.

이처럼 부평문화는 부평평야를 기반으로 행정구역으로 분할된 부평, 서구, 계양, 부천 지역에서 존재해 왔던 독자적인 문화권역이었다. 현재는 행정구역이 도로를 중심으로 지역을 인위적으로 분할되면서 독자적으로 형성된 부평문화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버거울 법도 하다.

위낙 그 뿌리가 깊었던 부평문화가 독자적으로 존재해 왔던 자부심에서 여전히 지금도 부평사람들은 “인천으로 넘어간다”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고, 바다(해양)를 중심으로 형성된 인천과 부평 평야를 근거로 존재해 온 부평지역이라는 지리 인식이 명확하게 간직하고 있고 그것에 중요 방점을 찍고 있었기에 여태껏 부평문화를 든든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부평문화를 향유해 온 지역이 도로를 중심으로 4덩어리(부평, 계양, 서구, 부천)로 분리되면서 부평문화로 불리기가 버겁게 된 현실이 가로놓여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이유는 서구문화, 계양문화원, 부평문화원, 부천문화원 이름으로 설립된 기관들이 제도적으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부평문화의 뿌리에 다가서는 역사·문화적 행위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더욱 쪼그라드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행정 지역이라는 칸막이로 분할하고 있어서 옛 부평이 4가지 지역으로 쪼개져 오래세월 살아온 탓에 다시 ‘부평문화로 한데 엮기에는 여러 상황이 녹록치 않다.

그래서 옛 부평문화를 향유했던 지역들을 소지역이라는 행정편의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어로 부평평야를 중심으로 형성된 ‘부평문화권’사용을 제안하는 것이다. 부평문화권에는 이런 곡절로부터 연유해서 제안한 용어이고, 현재 남아 있는 계양, 서구, 부평, 부천이 지닌 역사문화성을 부활할 뿐만 아니라, 소지역으로 쪼개져 문화의 독자성마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부평문화를 향유해 온 서구, 계양, 부평, 부천으로 이어지는 문화 벨트를 다시 묶어내는 문화 전략으로서 부평문화의 복원을 꾀하고자 부평문화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동안 잊고 살았던 드넓은 ‘부평평야’를 환기하면 저절로 서구, 계양, 부평, 부천은 문화로서 한 덩어리였음을 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2018년에 ‘부평평야를 기반으로 형성된 ‘부평문화권’ 복원을 이제야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다.

「시각」 재인용

# 부평 캠프마켓의 역사적 기억과 희망의 Archive



**박명식**  
부평구 문화재단 이사

## 1. 부평 캠프마켓(Camp Market), 잊혀진 땅에 대한 고찰

외부 세력 및 특정 집단에 의해, 즉 제국주의 집단에 의해 형성된 캠프마켓은 뼈아픈 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고 기억해야 할 역사적인 장소이다.

우리나라는 제국주의 침략으로 수탈과 학살 등 끊임없는 피해를 받아왔고, 광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략적 점령 지역이었다. 캠프마켓은 이러한 신생 독립 국가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으며, 힘없는 분단국가의 단면을 보여준다. 영토권·주권을 상실한 시대에 일본은 폭력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위한 조선병참화기지로 부평을 활용하였으며, 캠프마켓은 배신과 탐욕으로 민족의 운명을 팔아넘긴 친일의 역사와 함께 한다.

1800년대 말까지 부평은 도호부로 인구 1만여 명의 전원마을이었으며, 캠프마켓과 인근 주변 땅은 우국지사 민영환(閔泳煥)의 땅이었다. 민영환은 대한제국 정부의 각료로 서구의 근대식 제도를 도입하고 독립협회의 국민계몽운동을 후원하였고, 본격적인 자주민권 자강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쓰러져 가는 조선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제로 체결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이에 민영환은 11월27일 조정 대신들과 함께 어전에 나아가 을사늑약을 파기하고, 이에 서명한 이완용·이지용·박제순·이근택·권중현 등 을사오적을 처형할 것을 상소했다. 결국 11월 30일 '2천만 동포와 각국공사에게 보내는 유서' 2통을 남기고 자결한 민영환은 이후 조선 독립을 위한 의병계몽운동 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그 정신은 1919년 3·1 운동과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해외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에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민영환이 순절하자 부평 일대의 430만평에 이르는 광활한 땅은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민영환의 식객(食客)이자, 정미칠적(丁未七賊)중의 한 명인 송병준(宋秉駿)에게 넘어간다. 현 캠프마켓과 주변 땅에 대한 두 집안의 소유권 소송은 1908년 이후 2차례에 걸쳐 100여 년 동안 이어졌다. 결국 2011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해당 토지는 국가 소유로 결정되었으며, 그 판결 배경에는 17대 국회에서 제정한 '친일만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2005. 12. 29. 이하 친일재산특별법)'이 있었다.

일제에 35년간 식민지 지배를 받는 동안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타국 땅에서 이름 없이 죽어 갔으며, 일본군 위안부와 더불어 많은 조선의 민초들이 강제로 전쟁터와 군수공장으로 끌려가 나라 잃은 설움을 그대로 받아야했다.

친일파들은 그동안 온갖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의미의 민족적 과거 청산 없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인 만민족행위가 불가피했던 선택이라 주장해왔다. 3·1운동의 독립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헌법이 구현되고, 과거 청산이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으로서 철저히 이루어질 때, 그들이 깨우치지 못한 친일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민족사적 정의가 바로 서게 될 것이다.

부평의 한가운데 위치한 캠프마켓 부지가 한국 근현대사의 수난을 상징하는 잊혀진 땅·금단의 땅에서 100여년 만에 부평시민들에게 차츰 다가오고 있다.

캠프마켓은 닉슨 독트린에 의해 1973년 6월 30일 해체된 에스컴시티(Ascom City-Army Support Command)의 한 보급부대였다. 에스컴시티의 전신은 일본육군조병창이다. 일본육군조병창의 규모나 범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못했다. 다만, 광복 후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며 일본군 시설을 주둔지로 이어 사용했기 때문에 미군 주둔지의 범위가 일본육군조병창의 범위와 대략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캠프마켓에 대한 관심은 높으며 역사적 의미를 파악해 역사화 하려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있었지만, 여전히 현안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과 미군과 관련된 군사 시설인 관계로 접근이 제한적이었다. 또한 이 지역은 특정 집단의 기억 속에서 부정적·갈등의 장소이며 부(負)의 역사(Dark History)로서 여겨졌다. 일본은 본토와 식민지 및 점령지등 제국 영역을 대상으로 수행한 전쟁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실시한 강제동원 및 비극적·폭력적 강요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 등의 전쟁유적에 대한 사실을 인정도 않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 등을 제출을 거부하여 캠프마켓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땅은 부(負)의 역사를 알고 있다.

## 2. 부평 캠프마켓에 묻혀 있는 기억과 흔적

일제의 강점기가 본격화 되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일본 총독은 한국을 매우 가혹하게 통치하였다. 1909년에 부평군에서 토지조사를 시행하였으며, 1920년대 일제는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고



〈그림 1〉 Ascom City 전경 (1948.10.9.) ©Norb-Faye

자 식민지 조선에서 산미증식계획(産米増殖計劃)을 수립하였다. 그것은 곧 미곡생산을 위한 관개(灌溉)개선에 집중되었으며, 새로운 수리시설을 설치하였다. 1925년 부평수리조합이 설립되어 조선농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농민경제의 파탄을 초래하였고, 이에 대한 소규모 지주의 저항이 부평지역에서 일어났다.

1930년대에 들어와 일제에 대항하는 농민조합의 투쟁, 지주제의

모순 등으로 농민경제가 더욱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된 점과 1930년대 후반 이후 부평지역의 공업화가 농촌사회의 지주소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부분 중의 하나이다.

## 1) 일본육군조병창

부평지역은 1930년대 후반부터 군수 시설로 이용되었으며, 1920년대부터 일본군 제20사단 훈련장 부지로 사용된 7만 8000평과 산곡동 일대 33만여 평을 매입해 조병창 부지로 조성되었다.

일본군의 군사시설물은 제국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조건 교수(고려대 한국사연구소)의 「아시아태평양전쟁기 한반도 내 일본군의 군사시설 현황에 의하면 일본군시설물 건설 과정과 실태는 크게 네 시기에 걸쳐 살펴볼 수 있다. 첫 시기는 러일전쟁 개전 직후부터 1909년까지이다. 일제의 강압에 의해 맺은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에 근거해 주둔하기 시작한 한국주차군(韓國駐紮軍) 경리부(經理部)는 본격적으로 군용지 점탈과 군사시설물을 건축하였다. 한반도 군사통치의 중심이 된 용산은 이 시기부터 병영과 관련된 시설물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10년 이후 무단통치기였던 1916부터 1921년 사이이다. 일본군 사단의 상주화(常駐化)결정에 따라 용산의 제20사단, 함경북도 나남(羅南)의 19사단과 같은 주둔 시설이 건설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중일전쟁 이후 한반도 서북을 위수지역으로 할 평양의 추을(秋乙) 지구에 제30사단의 병영 시설을 건설한 시기이다. 네 번째 시기는 1944년부터 1945년까지로,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전황 악화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기지화가 심화되는 때이다.

일제에 의해 한반도에 건설된 군사시설물은 광복 직후 미군이 일본군 주둔지를 그대로 접수하게 되면서 고스란히 남게 되었다. 캠프마켓 역시 마찬가지이다. 2012년의 문화재청 「군 주둔지 내 근대건축·시

설 일제조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캠프마켓내의 건물은 93동 가량이 남아 있는데, 건물의 원형이나 용도·변형 유무·지하 시설 유무 등은 여전히 파악되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1952년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만 30여 동이 확인된 상태다.

일본육군조병창에 다수 존재하는 지하 시설물과 산곡동 일대 24곳의 토굴 역시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역사문화 콘텐츠로서의 구축 및 활용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할 부분으로 보여진다.

일본 제국주의가 일으킨 아시아태평양전쟁(1931~1945, 이하 아태전쟁)은 만주침략(1931년)과 중일전쟁(1937년), 태평양전쟁(1941년)으로 이어지는 침략전쟁이다. 이에 일제는 침략전쟁을 치르기 위해 강제로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다수의 인적, 물적 자원과 자금을 동원하였고, 국가총동원법(1938.4.)을 제정·공포했다.

〈표1〉에서 보듯이 1930년대 말 인천·부평은 전시 하 일제의 아태전쟁을 치루기 위한 군수공업화정책에 따라 경공업 위주의 공업구조에서 일본의 대규모 자본이 들어서는 중공업 중심으로 전환되어 평양과 함께 경인공업지대 중심지로 개발된 대표적인 지역이다.

〈표 1〉 1937~1942년 인천·부평지역에 진출한 주요 일본 대기업

〈인천〉	〈부평〉
株式會社朝鮮機械製作所(만석정) 주식회사조선제강소(만석정) 日本車輛製造株式會社인천공장(송현정) 조선중앙전기제작소(학익정) 朝鮮電線株式會社 朝鮮鋼業株式會社(송현정) 仁川制釘株式會社 朝鮮化工株式會社 조선목재공업주식회사仁川공장(만석정) 조선화학비료(화수정) 조선중앙전기제작소(학익정) 京城化學工業株式會社(일출정) 東京芝浦電氣株式會社(화수정) 日立製作所인천공장(학익정) 朝鮮理研金屬株式會社(송현정) 朝鮮理研고무工業株式會社(화수정) 帝國纖維工業株式會社	弘中商工株式會社(昭和町) 國產自動車株式會社 경성공작주식회사 東京自動車工業주식회사 오사카鐵絲工場 1938 부평공업주식회사 육군조병창 디젤자동차공업주식회사

※ 오미일, 「한국근대사연구」 '자본주의 생산체제의 변화와 공간의 편성 - 일제 말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2010. 6. 논문 인용

부평지역에는 자동차공장과 무기를 제작하는 인천일본육군조병창이 건설부지 100만 평을 목표로 1939년에 설립되었다. 특히 인천일본육군조병창의 설립으로 부평지역은 '군수공장의 중심지'가 되었다. 1942년경 조선 내 총 21개 기계기구 제작 공장 가운데 인천과 부평에 위치한 것은 9개로, 이는 1937년

이후 설립된 것이었다.

1938년 총동원체제를 선포한 일제는 조선을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삼겠다는 정책을 발표한다. 대륙병참기지화 정책의 일환으로, 1939년 일본 육군은 조선에 조병창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 해군과 달리, 육군은 조선을 중국 진출의 징검다리로서 보고 관련 시설을 만들어 운용했다. 일본 본토보다 한반도에서 전장에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하기 때문이었다. 일본 육군이 활용한 조선의 시설은 1940년 12월 조선구관구 사령부 예하부대로 편성된 인천일본육군조병창이 대표적이었으며, 이외 조선기계제작소 등 상당수의 업체들도 육군의 지시에 따라 물자를 생산하고 있었다.

육군조병창은 육군에서 사용하는 각종 병기를 생산하는 기관으로서, 1940년

육군병기창과 함께 '육군병기행정본부로 통합되었고, 무기 생산을 담당한 공장들은 '조병창'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후 각 조병창은 독립적으로 병기를 제조하였고, 자체 생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육군관리공장인 민간군수공장에 하청생산을 행하게 하였다. 따라서 조병창이 있는 주변지역은 대개 조병창을 중심으로 한 병기제조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조선 내의 조병창 설치 지역으로 일본 육군은 부평지역을 선택하였다. 부평은 조선에서 공업이 발달한 대표 지역인 서울과 인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인천항에서 멀지 않고, 경인선을 이용하여 곧바로 물자를 운송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게다가 부평평야가 있어 넓은 면적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본 육군은 이곳에 무려 백만 평에 이르는 조병창을 만들어 중일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선

으로 곧바로 무기를 공급하고자 한 것이다.



〈그림 2〉 경인시가지 계획 평면도

1930년대 우까기(宇坵一成)총독 주도의 '조선공업화' 정책 진행과 더불어 인천과 부평지역은 이미 일본의 대규모 자본이 들어선 경인공업지대의 중심지로 개발되고 있었다. 1937년 조선총독부는 '인천시가지계획'을 발표하여, 인천을 상업, 공업, 주거지로 구분하여 전쟁 수행에 적합하도록 통제된 계획도시로 개편하고자 하였다. 뒤

이어 1940년에는 '경인시가지계획' 발표하여, 경인지역에서 7개의 공단과 11개의 거주지를 건설하고, 영등포-부평-인천지역을 공업지대로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부응하여 부평에는 금속·기계공업 중심의 공장들이 들어섰다.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 일본 육군의 인천조병창이다. 1939년부터 부평에 터를 잡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조병창의 공사는 일본 건설업체인 다마보구미(玉操組), 다다구미(多田組), 간또구미(關東組), 하사마구미(間組), 시미즈구미(清水組) 5개 업체가 맡았다. 이 공사에 필요한 노동력은 인근의 김포와 강화를 비롯하여, 조선의 전 지역에서 시, 군 단위의 근로보국대 형식으로 청장년을 동원하여 투입하였다. 1940년 6월부터 1941년 10월까지 매달 100명씩을 근로보국대로 동원하였다.

일본인천육군조병창은 총검공장과 기능공양성소를 우선 준공하여 1941년 5월 5일 개창식을 가졌다. 일본인천조병창에는 부평의 제1제조소와 평양병기제조소가 있었고, 제1제조소 아래에는 3개의 공장이 있어, 각 공장마다 총탄과 총열, 총대, 총검, 군도 등을 나누어 제작하였다. 인천의 제1제조소와 평양병기제조소, 민간 하청공장에서 생산하던 병기의 종류와 수량은 매달 소총 4천정, 총검 2만개, 소총탄환 70만발, 포탄 3만발, 군도 2천개였으며, 차량 2백량과 200만엔에 달하는 피혁·마제품을 생산하였다. 1944~45년간에는 250척의 배와 1945년에는 무전기 200조를 만들었으며, 잠수정의 급격한 수요에 대비하여 육군의 지시로 비밀리에 조선기계제작소 인천공장을 감독해 잠수정을 제작하였다.

이태전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일제는 전쟁 물자 생산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고, 가혹한 수탈과 강제 동원이 시작되었다. 인천대학교 이상의 교수의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제의 '인천조병창운영과 조선인 학생동원' 연구논문에서 보면 일제의 대륙병참기지로서 역할을 해야 했던 조선에서 연인원 650만 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그중 상당수는 학생층이었던 점이 주목된다고 하였다. 그 주요한 동원지역이 바로 인천일본육군조병창을 중심으로 한 인천의 군수공장들이라는 것이다.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천조병창에서 종사하고 있었는지 그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는다. 적게는 3천 여명, 많게는 2만 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조선을 군수공업기지화하기 위해 1939년 부평에 조병창이 들어서면서 그 주변에 많은 군수공장과 토목건축 업체가 들어섰다. 문제는 조병창과 하청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살 집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일제는 공장 노동자들의 집단 거주지를 조성했다.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으며, 그 지역을 살펴보면 청천동 '검정사택', 산곡동 '영단주택', 부평1동 '다다구미', 부평2동 '삼릉(미쓰비시 출사택)과 '히로나카 사택', 부평3동 '신촌, 부평4동 '지젤사택' 등이 있으며, 오로지 전쟁 수행을 위한 노무자와 종업원의 열악한 주택단지였다.

광복 이후에는 미육군대에 근무하는 노동자와 1960년대 후반 조성되는 부평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활 터전이 됐다.

## 2) 애스컴시티(ASCOM City)와 캠프마켓(Camp Market)

애스컴(ASCOM)은 미육군군수지원사령부(Army Support Command)의 약자이다. 예전에는 '애스컴

데폿(ASCOM Depot) 또는 ‘데보라고 불렀고, 8057부대나 55부대라고 나누어 부르기도 했다.

에스컴시티의 다른 이름은 APO 901(Army Post Office - 군사우체국)으로 미군의 군사우편 주소다.

이는 에스컴시티가 미군의 영토(미국방성의 재무상 부동산)임을 나타낸다.

한국 전구(戰區, Korean Theater)를 6개 권역(Area)으로 구분하는 주한미군의 권역 구분상 AREA II에 속하여 주한 미 육군사령부(미8군, U.S. 8th Army)의 지휘를 받으며, 용산 미군기지(Yongsan Garrison)에 속한 미 육군 군수기지로 기능해 왔다. 주요 기능은 미 육·공군 교역처 베이커리, 창고 등 저장 시설, 주한미군 군수품 재활용사무소(DRMO : 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를 운영하는 것이고, 훈련시설로 활용되어 왔다. DRMO는 2011년 김천시 아포읍으로 이전하였고, 현재는 공터로 남아 있다.

부평지역에 처음 미군이 진주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9월이다. 미군은 일본에서 항복문서 조인식을 끝낸 후,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에 1945년 9월 8일 상륙했다. 미 제24군단 지휘부가 먼저 인천항을 통해 들어왔고, 미 제7사단이 뒤를 이었다. 초기에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부대들은 대개 야전부대 중심이었으나 차츰 군정부대가 투입되어 군정을 이끌어 갔고, 결국 1946년 1월 4일 주한미군정사령부(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가 출범했다.

1945년 이후 미군이 부평에서 완전히 철수한 시기가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은 탈출 매뉴얼에 따라 코드명 ‘하이볼(Highball)’을 발령한 후 에스컴 시티를 떠났다. 이후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과 함께 다시 부평에 자리를 잡았고, 미 제3군수사령부(3d logistical command)가 다시 부평에 주둔을 한 때가 9월 18일이니, 에스컴 시티는 그 사이 약 3개월 동안 북한군의 점령 하에 있었다. 1.4후퇴로 다시 철수해야하기도 했지만, 이후 지금까지 규모는 축소됐어도 같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광복 후 현재까지 미군의 부평지역 주둔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1945년 8월 28일 : ‘베이커-포티(Baker Forty)’라는 작전명에 따라 미 제24군단이 38° 이남을 3단계 점령 임무 시작
- 1945년 9월 8일 : 미 제24군단 예하(하지 중장)사령부와 제7사단이 인천에 제일 먼저 상륙
- 1945년 9월 10일 : 미 제24군수지원사령부(ASCOM 24)가 부평에 있던 인천일본육군조병창 접수
- 1945년 9월 16일 : 에스컴 시티(ASCOM City)라 명명
- 1945년 11월 15일 : 미 제39군정중대, 미 제24군수지원사령부에 배속, 군정업무 시작되고 에스컴 시티는 미군의 남한 주둔을 위한 주요 군수기지로 운영(1950. 6. 26.까지)
- 1949년 6월 27일 : 한국정부 수립 후, 미군 일부 부평지역에서 철수(남한에는 500명의 주한미군 군사교문단 주둔)



- 1950년 6월 26일 : 코드명 ‘하이볼(Highball)’에 의거 애스컴 시티에서 완전 철수
- 1950년 9월 18일 : 미 제3군수사령부 부평에 주둔. 그해 겨울, 1.4후퇴로 철수
- 1951년 봄 : 부평지역 재 주둔하며, 195병기중대, 330병기중대, 74병기대대 등 배치
- 1953년 휴전협정 체결 무렵 : 미 해병대 군수지원사령부 주둔했다가 1955년 이전하고, 미8군 사령부가 1955년 7월 26일 용산으로 이전됨. 121 후송병원 및 병참기지·인천 보충대가 배치.
- 1963년 : 애스컴시티가 ‘Quartermaster City’등으로 불리는 것을 7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명명.(미국 대통령들의 이름을 빌려와서 명명)
  - ※ 캠프 마켓(Camp Market) 뿐만 아니라, 캠프 하이예스(Hayes), 캠프 그란트(Grant), 캠프 타일러(Tyler), 캠프 아담스(Adams), 캠프 해리슨(Harrison), 캠프 테일러(Taylor)로 명명 되었다.(미8군 보급창으로 조직)
- 1969년 7월 26일 : 닉슨 독트린(미국 대외 안전보장정책) 발표
- 1971년 : 1944년에 창설된 121 후송병원이 용산 이전 및 부대철수 시작
- 1973년 6월 30일 : Bakery·DRMD 및 군 훈련 보급시설만 잔류하고 ASCOM City 해체, 캠프 마켓(Camp Market) 으로 축소
- 2002년 : 연합토지관리계획 LPP(land partnership plan)의거 2022년에 인천시에 반환 예정(부지 활용 계획 : 공공시설 29%, 문화공원 71%)

캠프마켓의 반환에는 1996년 인천시민회의와 1997년 부공추 (부평미군부대 공원화추진 시민협의회)로 발족한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 그리고 주민들의 아끼지 않는 노력이 있었다고 본다.

캠프마켓은 조만간 평택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공간 활용 문제와 더불어 또 하나 제기되는 사안 중의 하나가 환경정화문제이다. 2015년에는 ‘부평캠프마켓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부영공원의 환경정화작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또한 2017년 10월 27일에는 환경부가 보도 자료를 통해 SOFA ‘공동환경평가절차에 따라 실시한 두 차례의 캠프마켓 환경조사 결과, 다이옥신·유류·중금속 등의 복합적인 토양오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인 미군기지 내부 환경조사 결과를 한·미간 합의하에 반환에 앞서 미리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OFA 관련 규정상 미국은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따라 환경정화 이행의 의무가 있지만, KISE(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화책임(비용부담)에 한·미간의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 3. 애스컴시티(ASCOM City) 내의 부대와 그 주변

애스컴시티의 대략적인 규모는 남북 방향으로 백운역에서 산곡북초등학교 인근까지, 동서 방향으로 명신여자고등학교에서 부평고등학교까지다. 2019년 현재, 부평에 소재한 미군기지의 공식 명칭은 캠프마

캠프(Camp Market)이다. 면적은 애스컴시티가 1973년 6월 30일 공식적으로 해체되고, 대부분의 부대가 이전·반환되어 캠프마켓은 애스컴시티 면적의 약 20% 정도인 48만m<sup>2</sup>가 현재 남아 있다.

애스컴시티 내에는 여러 부대들이 계속 교체되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주둔했던 부대가 다를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대를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다. 대략 1973년 이전까지 애스컴시티에 배치됐던 부대들이다.

- 6의무 보급창(6th Medical Depot)
- 121후송병원(121st Medical Evacuation Hospital)
- 21재무중재(21st Finance Company)
- 181통신중대(181th Signal Co)
- 728헌병대 D중대(Company D, 728th Military Police Battalion)
- 249헌병파견대(249th MP Detachment)
- 503헌병중대(503rd MP Co)
- 74병기대대(74th Ordnance Bn)
- 87병기대대(87th Ordnance Bn)
- 30병기중대(30th Ordnance Co)
- 195병기중대(195th Ordnance Co)
- 330병기중대(330th Ordnance Co)
- 182병기파견대(182nd Ordnance Det)
- 599공병기지창(599th Engineer Base Depot)
- 44공병대(44th Engineer Bn)
- 37정비대대(37th Maintenance Co)
- 335정비대대(335th Maintenance Bn)
- 512중장비중대(512th Heavy Equipment Maintenance Co)
- 505병기파견대(505th Ordnance Det)
- 70수송대대(70th Transportation Bn)

캠프는 아래의 지도를 참고할 때,

〈캠프 마켓(A), 캠프 하이에스(B), 캠프 그란트(C), 캠프 타일러(D), 캠프 아담스(E), 캠프 해리슨(F), 캠프 테일러 등이 확인된다. 애스컴시티는 1973년 공식적으로 해체되는데, 이때 각 캠프와 부대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고, 캠프마켓만이 잔류하였다.〉

애스컴 사령부에는 메인구역인 캠프마켓에 있었다. 이를 55 부대라고도 불렀다. 그 전에는 ‘쿼터마스터

시티(Quartermastr City)'라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캠프 하이에스(Camp Hayes)는 8057 부대라 불리었다. 부평구 산곡3동과 부평3동을 구역으로 하고 있었고, 주요 시설들은 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부영공원부터 부평서중학교·백운주택 인근까지 배치되어 있었다. 동서 양쪽으로는 각각 펜실바니아 애버뉴(Pennsylvania AVE)와 일리노이 애버뉴(Illinois AVE)라고 이름붙인 도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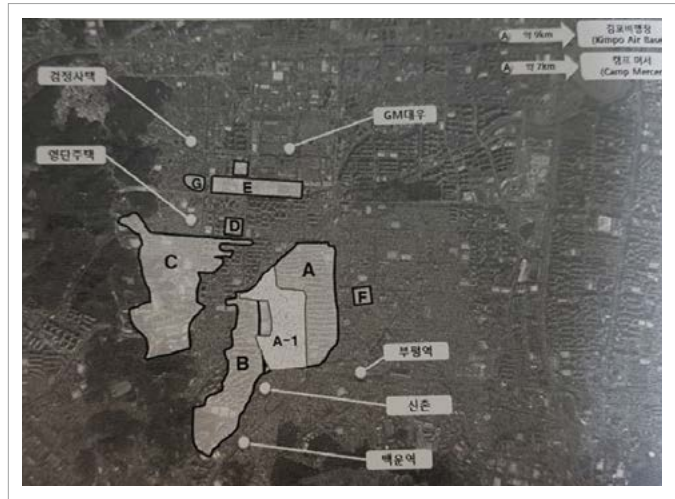
남북으로 가로질러 놓여 있었다. 이곳에는 한국전쟁 중 제10반공포로수용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지금의 부영공원 자리에 약 1,486명의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가 있었다. 이들은 미 제44공병대에서 작업을 하며 포로 생활을 하였으며, 대부분이 함경도 출신으로 알려 있었다. 1953년 6월 18일 자정을 기해 내려진 명령에 따라 전국에서 일제히 27,389명의 반공포로들이 석방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61명이 미군 경비병의 사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 중 사망 47명·부상 60명이 부평포로수용소에서 탈출하려던 포로들이었다. 부평 제10포로수용소는 에스컴시티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어 탈출이 어려웠다.

아직까지도 이곳에는 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는 표지석이나 안내판 하나 없는 현실이다. 부평반공포로수용소 인근에 후에 176보충대(장교)와 177보충대(일반병)가 들어섰다. 부평 에스컴시티는 주한미군의 물자뿐만 아니라 인천항을 통해 대부분의 병력이 오가던 전략기지였다. 이러한 역할은 부평 ASCOM에 있던 보충대가 하였으며, 주한미군이 복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이동하거나 전출하는 경우도 꼭 한 번은 거쳐 가야 하는 통로였다.

이곳에는 1954년 1월 15일에는 문산에서 이송된 약 14,400명의 중국 반공포로들을 임시 수용소가 있었으며, 같은 달 21일 인천항을 통해 전원 대만으로 향했다.

캠프 하이에스 내에 주목받았던 곳은 6의무보급창(6th Medical Depot)과 121후송병원(121th Evacuation Hospital)이다. 의료시설이 부족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부평사람들은 121후송병원을 미군부대의 상징처럼 생각하고 최신시설을 갖춘 최첨단 병원으로 기억하고 있다. 병원 맞은편에는 6의무보급창이 있었다. 지금의 산곡동 현대2차아파트가 들어선 곳이다.

캠프 하이에스는 화랑농장과 접해 있는 곳이다. 화랑농장은 1952년 상이군인 출신의 김국환이 개척한 상이군인들의 정착지이다. 1955년 8057 부대의 지원을 받아 건물을 세우기도 하였으나, 초기에는 인



김현석 「부평미군기지의 역사와 기지 '반환' 의 성격」 발췌

근에 있던 동굴에서 거주하며 살았다고 한다. 상이군인들이 거주했다는 동굴은 화랑농장 일대에 분포되어 있으며, 일본육군조병창의 전쟁 유적으로 부평토굴로 보인다.

보충대까지 연결된 기차길에서 언덕길을 쪽 따라 가는 길이 펜실바니아 에버뉴이다. 여기서 8번 게이트로 나오면 바로 길 건너편에 드림보우트(Dream boat)·아리랑이라는 클럽 등이 위치하였고, 미군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클럽이다. 이 일대가 '신촌'이라고 부르는 지역으로 미군 전용 클럽들이 늘어서 있던 곳이다. 수많은 클럽 등을 통해 서양 음악이 들어오면서 신촌과 삼릉 일대에 많은 밴드 연주자들이 거주하기도 하였다.

한국 대중음악의 산실 에스컴(ASCOM)은 지역 경제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동시에 미국 대중문화를 소개하고 전파하며 한국대중 음악사의 흐름을 바꾼 역사적 배경지였다. 에스컴(ASCOM) 영내에는 12개의 미군 클럽이 있었고, 영외 주변에 23개 민간인 클럽이 영업을 했다. 재즈, 블루스, 팝, 로큰롤에 댄스,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로 발전된 음악은 부평을 대중음악의 뿌리로 자리 잡았을 수 있게 하였다. 미8군 클럽에서 활동한 밴드는 용산에 있는 주한미공보원(USIS)에서 오디션을 보고, 실력을 인정받은 플로어밴드와 특정 부대나 클럽 소속인 하우스밴드, 미군부대 내 정규 클럽이 아닌 뮤지션인 오픈밴드로 구분되었다. 수많은 클럽을 통해 재즈, 팝 등 다양한 서양 음악이 들어오면서, 신촌과 삼릉 일대에 많은 밴드 연주자들이 거주, 1950~70년대 가요계를 이끈 뮤지션의 근거지가 되었으며, 음악도시로서의 모티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8057부대가 떠난 후 이 자리에는 제9공수특전여단이 들어서게 되었다.

캠프 그란트는 부평구 산곡1동과 산곡2동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으며, 일부에 현 3보급단 및 한국군 부대가 들어서 있다. 세일고등학교와 명신여자고등학교를 거쳐서 산곡동 한신휴아파트 맞은편까지 이어진 구역이다. 명신여자고등학교 인근에는 빵을 만들던 공장이 있었으며, 512중장비중대(512th Heavy Equipment Maintenance Co)가 주둔하였고, 금호이수마운트밸리아파트 자리에는 활주로가 조성되어 있었다. 활주로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곳이 캠프 타일러이다. 일리노이드 에버뉴와 연결되는 도로에 노랑다리길이 있다. 1972년 개통된 철마산 도로를 통해 인천교·송림동·월미도로 연결된다. 인천교가 개통되기 전에는 번지기나루터를 이용해 송림동과 연결되는 곳인데, 조병창·군부대가 들어서기 전에는 3보급단 안쪽에 있는 장고개길을 주로 이용하였다.

캠프 아담스는 산곡1동과 청천2동에 위치하였다. 현재 한국GM 공장이 일부 부지를 포함하고 있다. 캠프 아담스 서쪽으로는 미군 교도소가 있었다. 캠프 그란트에서 캠프 아담스까지는 서쪽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시대 영단주택이 조성된 구역이다. 캠프 테일러와 캠프 아담스 사이에는 관동주와 체리힐 등이 있으며, 에스컴 시기를 거치면서 기지촌으로 변모한다. 부평1동의 다다구미, 신촌, 삼릉등이 대표적인 곳으로 미군클럽들을 중심으로 '미군위안부들의 주거지가 위치해 있다.

캠프마켓은 에스컴시티의 메인 구역으로 부평구 부평1동, 산곡3동, 산곡4동에 걸쳐 위치한 미군기지이

다. 현재는 구역의 절반가량이 축소되어 남아 있다. 본래 캠프마켓의 동쪽과 남쪽 경계에는 하천이 해자처럼 둘러싸고 있었으나 지금은 대부분 복개되어 공영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 중이며, 1970년대 반환된 구역은 이후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어 우성·대림·옥일·동아·대우아파트 등이 들어섰다. 동아아파트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군용철도와 나란히 옆에 있는 길을 세크라멘토 스트리트(Sacramento Street) 불리었다. 길옆에 에스컴 사령부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별도의 철조망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조병창의 메인 구역이기도 하다. 일본군 조병창 본부가 이 구역에 위치해 있었다. 그밖에 보안과나 헌병대·통신대가 속하였고 부원중학교 자리에 정비중대가 들어서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구역은 군 저장시설로 활용되었다.

아파트 건설과 함께 기지촌 시절의 건물들이 거의 대부분 사라졌지만, 일부는 북인천우체국 뒤편에 다다구미(평화촌)에 아직까지 상당수 남아있다. 당시에는 관동주와 다다구미는 미군들이 출입하기도 하지만 한국인들의 출입도 가능한 곳이었다. 신촌기지촌이나 백마장기지촌이 한국인들의 출입



을 배타시했던 것과 구별된다. 신촌의 경우, 일반인들이 마을 안으로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에스컴이 해체되고 난 뒤에 한참이 지난 1980년대 중반 이후다. 그만큼 미군기지 주변의 기지촌은 한국인들에게는 낯선 공간이었다.

기지촌은 1960년대 당시 정부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일종의 관광지였다. 관광은 외화 획득의 '사업'으로서 의미가 강했다. 이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1961년 8월 22일 제정, 공포된 '관광사업진흥법'이다. 기지촌에 있던 미군전용클럽 역시 관광 휴양업에 속한 관광휴양홀로 분류되었다. 기지촌에서 유통되던 주류 등도 관광협회를 통해 유통되는 구조였다. 지금의 관광은 특정 지역을 둘러보는 유람(遊覽)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지만, 1960~70년대는 외화획득을 위한 국가적 '사업'의 의미가 강했다. 특히 기지촌에 적용된 관광은 일면 '접대와 같은 말로 쓰였다.

기지촌 미군위안부나 혼혈인은 물론 음악인들 모두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 중의 일부이다. 아픈 진실이지만, 기지촌 문화에 대한 접근과 함께 이들의 삶에 대한 조사가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다.

### 3. 이어지는 말

부평은 인천과 다른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도시로 성장했다. 일제의 조병창, 미군의 에스컴과 캠프

프마켓의 아픈 역사를 겪으면서 부평의 타자성(他者性)이 형성되어 가는 것은 지난 100여 년간 외부세력에서 오는 힘에 대한 자아의식으로 보인다.

일제의 침략과 동족상잔의 비극에 이은 불안한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민족이 자기 힘으로 쟁취한 해방이 아닌 주어진 해방일 때 감당해야만 하는 허망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이야 말로 과거의 강대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저질러졌던 잘못된 역사를 되새기며, 민족의 운명을 자기 안일의 수단으로 이용한 친일과 사대주의자들을 국가적 청산하는 발돋움의 발돋움의 발돋움이 될 것이다. 또한 민족정기를 바로잡는 것이 내일을 위한 산교훈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1. 「부평미군기지의 역사와 기지 '반환'의 성격」 김현석, 인하대박물관, 2013
2. 「자본주의 생산체제의 변화와 공간의 편성 - 일제 말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근대사연구』, 오미일, 2010. 6.
3. 「캠프마켓」, 한만송, 2013
4. 「아시아·태평양전쟁기 경인공업지대화와 일본조병창의 역사」, 이상의, 인천대 기초교육원 교수, 2018. 11.
5. 「아시아·태평양전쟁기 한반도 내 지하시설 현황과 부평토굴」, 조건,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2018. 11.
6. 「캠프마켓의 기억과 흔적에 대한 아카이브」, 이희환, 경인교대, 기전문학연구소 연구위원
7. 「에스컴시티와 부평기지촌의 역사적 지평」 김현석, 인천민속학회이사, 2018
8. 「부평의 아시아 태평양전쟁 유적」,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 문화콘텐츠 구축 및 활용방안』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연구위원, 부평역사박물관, 2017,

## 부평 비평 2

# 부평 대중음악둘레길이 이미 있었다!

이장열 대표(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 1. 들어가며

제주에는 올레길이 있다. 제주 오름을 걷는 길을 올레길로 명명해서 사람들에게 제주가 지닌 지리적 풍광을 널리 알려내는 것이 제주 올레길이다. 오름이 제주에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제주 올레길이 생기면서 제주도가 먼 섬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섬으로 다가왔다. 제주 오름이 있어서 올레길이 생겼다면 이젠 부평 도심에도 둘레길을 만들 무형의 자산이 존

재하고 있다. 20여 년간 부평은 한국대중음악의 중심지였던 부평 대중음악둘레길을 만들어서 부평이 지닌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려낸 일을 시작한다. 제주 오름과 같은 자연은 존재하지 않는 부평에서 대중음악둘레길을 만드는 일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부평은 한반도 내에서 미국 대중음악을 집중적으로 받아내면서, 그것도 광범위하게 수용한 장소로서는 유일하고 이 곳 부평이 한국대중음악사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이 유일한 중심 장소였던 점이 생똥맞지만 부평 도심 한가운데에 부평 대중음악둘레길을 만들



수 있는 유일성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 2.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1코스- 부평 애스컴시티(대중음악 소비공간)

부평은 1950년대 중반부터 1979년대 중반까지 한국대중음악사에 큰 족적을 새긴 곳이다, 미8군의 가장 큰 미군기지 애스컴시티(미군수지원사령부)가 부평에 자리 잡았다는 이유로 미국의 대중문화가 한반도에 가장 큰 규모로 유입되었다.

부평 애스컴시티에는 미8군의 미군지원사령부가 자리잡았다. 미국 본토의 미군 전력이 한반도에 진출 되어 오면 보충대가 설치된 애스컴시티에 반드시 거쳐 가야하는 곳이기에 한반도 내 미군기지 가운데 상시적, 유동적 미군 전력이 가장 많았던 특징을 지닌 곳이다. 1962년 7월 2일자 동아일보에는 부평 애스컴시티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노무자가 8천여명, 미군위안부는 1천8백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었다는 기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부평 애스컴시티에는 수많은 미군들이 근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부평 애스컴시티만 7개 캠프가 있었고, 미8군의 위락시설로 분류된 클럽도 한반도 내에서도 가장 많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애스컴시티 클럽은 22개로 장교클럽, 부서관클럽, 사병클럽, 극장으로 구분해서 존재했다.

부평 애스컴시티에는 부평 애스컴시티에는 4개의 큰 규모의 Camp Market, Camp Grant, Camp Taylor, Camp Tyler와 작은 규모의 3군데 Camp Adams, Camp Harris, Camp Hayes가 크고 작은 작은 7개 캠프로 구성되어 있다.

부평 애스컴시티에는 보급창, 의무대, 공병대, 통신대, 항공대 등의 미군 부대들이 자리 잡았다. 121후송병원, 55보급창, 6의무보급창, 565공병자재창, 19병기창, 44통신대, 512정비대대, 55항공대, 8057보충대, 37공병대, 8057보충대, 37보충대, 76보충대, 79병참대대, 44공병대, 76공병대, 70자동차부대, 74자동차부대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현재 부평 캠프마켓(Camp Market)면적은 약 44만m<sup>2</sup>이다. 행정구역상 부평구 산곡3동과 산곡4동에 걸쳐 있다. 캠프마켓만 남아 그 규모는 크게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반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캠프마켓은 2011년 기준으로 군인 1명, 군무원 10명, 한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민간인 30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미 육.공군 교역처 베이커리(AAFES BAKERY) 공장만 가동 중에 있다.

부평 애스컴시티 클럽은 최신 미국 대중음악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었던 공연장이었기에 대중음악이 소비되었던 자산으로 바도 무방할 것이다. 부평 애스컴시티 클럽에는 미8군 오디션을 통과한 한국 연주자들이 밴드를 구성해서 공연했다.

부평 애스컴시티 클럽에서는 매일 밤 한국인 밴드들이 미군들이 좋아하는 음악들을 연주하였던 이유로 한국인 밴드 구성원들은 늘 미국의 최신 대중음악을 연습하지 않으면 안될 여건이었다. 당시 한국에서는 새로운 미국 대중음악의 리듬 감각을 한국인 밴드 연주자들이 어느 곳보다 집중적으로 수용하



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부평에서 연출된 셈이다. 이런 밴드 연주자들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리듬을 익히게 되면서 한국 대중음악이 새로운 장을 마련하게 된 것이기에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 클럽은 한국 대중음악사에 큰 기여를 한 장소이자 한국 대중음악의 소중한 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 대중음악사에 새로운 장을 마련해 준 부평 애스컴시티 클럽들을 기억하고 그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곳에서 연주한 한국인 밴드 현황, 밴드가 연주한 곡들을 죄 찾아내어 기록하고 발굴해서 널리 알려내는 일은 부평지역사를 두텁게 할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여겨진다.

부평 애스컴시티 주변으로 한국대중음악 중심지로서 그 의미를 간직한 장소 주변으로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1코스를 조성하는 것은 부평지역사와 한국대중음악사를 폭넓게 확장시킨다는 측면에서 마땅하게 진행되어야 할 일일 것이다.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은 대중음악의 소비 공간으로서, 한반도에서 미국 대중문화의 최대 수용지로서 부평 애스컴시티의 역사성을 복원한다는 측면과 더불어 지역사 관점에서도 뜻깊은 미래 지향성을 띤 실천이다. 이와 더불어 부평에 대중음악둘레길 조성이 가능한 이유는 소비 공간만 존재했다면 가능한 일이 아니다. 대중문화의 유통, 창작 영역이 동시에 존재할 때 부평 대중음악둘레길은 조성 명분이 생길 수 있다.

부평에서 대중음악의 소비공간으로서 부평 애스컴시티 뿐만 아니라, 유통 공간과 창작 공간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부평 대중음악둘레길이 대중문화 관점에서 완벽한 조건을 갖춘 곳으로 부평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 3.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2코스-부평 신촌(대중음악 유통 공간)

대중음악의 유통공간으로 부평 신촌에는 미군전용클럽이 22군데나 있었던 장소였다. 부평 신촌은 미국의 대중음악을 한국인들도 접할 수 있는 당시로서는 한반도에서 유일하고도 미군전용클럽이 밀집해 있었던 곳이었다. 부평 신촌에 존재했던 22군데 미군전용클럽 주변을 연결해서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2코스를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이다. 부평 신촌이 부평 대중음악둘레길2코스로 가능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대중음악을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한국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고, 미국의 대중음악이 한국인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던 장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 대중음악의 대중성과 역사성이라는 측면에서 유통공간이었다는 것만으로도 부평 신촌은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2코스로서의 의미가 있는 곳이다.

### 4.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3코스-부평 삼릉(대중음악 창작 레지던스 공간)

특히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3코스는 한국 대중음악에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낸 창작 영역을 담당할 장소로서 부평 삼릉이 적임지다. 부평 삼릉은 한국대중음악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로서 새롭게 조

명되어야 할 장소이다. 여지껏 부평 대중음악을 이야기할 때 미군부대 중심으로 곧 수동적 관점에서 접근해 오다보니, 부평이 그저 미군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대중음악으로만 인식되는 태도를 보였고, 앞선 연구자들도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수동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하고, 한국의 대중음악 리듬을 개척한 적극적인 관점에서 부평 대중음악을 인식하는데 부평 삼릉은 창작 레지던스 공간으로 막중한 역할을 담당했던 장소로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부평 삼릉은 미8군 오디션을 통과한 밴드 연주자들이 집단적으로 200여명~300여명이 늘 20년 동안 거주한 공간이었다는 점을 대중음악에 관심을 둔 이들이 간과하는 바람에 부평이 한국대중음악의 중심지였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말았다. 서울에 자리한 미8군 사령부에서 오디션을 통과한 한국인 밴드 연주자들은 부평 삼릉에서만 배차되는 미8군 버스를 타고 부평 에스컴시티, 경기도 의정부, 파주 등 미군기지 클럽으로 연주하기 위한 출퇴근을 해야만 했다.

부평 삼릉은 미군클럽에서 연주하는 한국 밴드연주자들을 집단적으로 모여 살 수 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부평 삼릉의 낮 시간에는 밴드 연주자들이 악기 연습을 하는 진풍경이 늘 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부평 삼릉은 미군철수가 이어진 1970년대 초반까지 전국에서 모여든 실력 있는 청년 연주자들 200~300여 명이 집단적으로 모여 산 계도와 같은 장소로서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보기 드물고 유일하게 연주자들이 집단 거주한 진풍경이 연출된 곳이 바로 부평 삼릉이라는 콘텐츠를 이제서야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에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는 민간차원에서 부평 삼릉을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3코스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 부평 삼릉은 한국 대중음악 연구자들조차 애써 주목하지 하지 않았다. 부평 삼릉은 20여 년 간 한국 대중음악의 중심지로서 창작 레지던스 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한 곳인데, 여지껏 이런 가치를 발견하거나 재인식하지 못한 결과 부평이 대중음악도시로 힘있게 나아가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부평 삼릉에 거주한 대중음악 연주자들을 발굴해야 한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부평 삼릉을 부평 대중음악둘레길에서 가장 중요한 코스로 인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평 삼릉은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른 가수 배호가 처음 미국 대중음악을 처음 접한 곳이기도 하고, 부평 에스컴시티에서 드러머 연주자로 대중음악의 첫발을 디딘 장소로도 기억되어야 할 만큼 한국 대중음악사에 가장 중요한 장소로 부평 삼릉은 재인식되어야 할 곳이다.

## 5. 나오며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은 부평 지역사와 한국대중음악사 관점에서도 누구라도 대중음악의 자산이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는 부평 에스컴시티, 부평 신촌, 부평 삼릉을 잇는 일은 부평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부평의 미래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해야 할 역사적 과업인 셈이다. 그래서 '에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는 부평 대중음악둘레길 조성을 이미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 부평에서 놓고 여기서 미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 부평 연구

## 음악도시 부평문화정체성 찾기

정유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문화복지위원장)

## 1. 문화의 정체성 찾기

“문화”란 무엇일까.

사전에서는 ‘문화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인류의 행동 양식’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의 세계를 표현하기에는 무언가 미흡하다. 명확하게 개념정리가 되지 않는다.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행위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행하는 모든 행동들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인류가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행동 양식도 포함된다. 의식주를 해결하는 모든 행위,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감정과 사고(思考)까지도 모두 문화의 범주에 든다. 그 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어우러지면서 만들어내는 산물들 역시 문화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 문화란 이렇게 우리의 삶 곳곳에서, 매순간 어떤 식으로든 인류와 관계를 맺으며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보고 접하는 유형(有形)의 사물들은 물론 제도나 관습, 지식처럼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있는 무형의 것들까지 모두 문화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세상의 모든 것처럼 인간의 행동 양식 역시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지리적, 역사적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혜롭게 적응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니 생활양식 역시 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다양하고 광범위한데다가 변화까지 갖추고 있는 성질들 속에서 문화라는 고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문화의 정의가 쉽지 않은 이유다.

※ 이 보고서는 2012년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문화복지분과에서 당시 위원장을 맡았던 정유천 선생님이 부평의 음악도시 관련해서 처음으로 자료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보고서 내용은 수정·보완없이 그대로 수록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문화에 대해 명명한다. 민족문화, 고유문화, 근대문화, 서구문화, 청소년문화, 대중문화 등으로. 이런 분류의 근거에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다양한 기준 즉, 민족, 시간, 지역, 세대, 도구, 계층, 지리적 환경 등이 적용된다. 어찌 보면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하는 성질을 가진 인간 집단의 모든 행위가 문화를 분류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혼재하는 상태에서 문화라는 집합체를 만들어내고 그 문화의 정체성을 유도하는 일이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는 인터넷이나 SNS의 발달로 물리적이거나 지리적 거리보다 심정적으로 더욱 가까워졌다. 지구의 어느 구석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클릭 한 번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런 현대 사회는 다른 지역들과 변별력을 가진 문화를 원한다. 그 지역의 독특한 환경 속에서 짝튼 문화를 세계의 유산으로 남기려고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발굴, 다듬어 내려고 집중한다. 이러한 문화를 발굴하기 위해선 우선 그 지역의 지리적 배경과 그 속에서 진행되어 온 역사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그 지역에서 형성된 그 지역 고유의 문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대보다 변화의 흐름이 느렸던 농경사회에도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다른 형태의 문화로 발전해 왔듯,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해온 지역적 특성을 담고 있는 환경이야말로 지역 문화를 변별하는 좋은 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음악도시 부평, 문화의 정체성 찾기>는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인천의 개항과 더불어 들어온 신문화가 부평이라는 지역을 통과하며 남긴 문화, 특히 광범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ASCOM(Army Service Command 24)과 더불어 발전했던 대한민국 POP 음악의 무대와 그 종사자들을 찾아 인터뷰하고 정리했다. 당시 연주자들에게 최고의 무대였던 ASCOM 무대에서 공연한 이 지역의 음악인들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 활발하게 공연하고 있는 부평의 밴드들을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이 지역에 남아있는 마지막 부대인 캠프마켓이 이전하고 나면 그 부지에 이러한 문화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부평만의 특화된 콘텐츠 및 관광자원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제시했다.

## II. 개항과 더불어 들어온 인천의 신문화

이 세상은 교통수단의 발달, 특히 선박의 발달로 인해 하나의 세계로 묶이기 시작했다. 먼 거리의 교통이 가능해지자 인류의 활동 영역은 넓어지면서 미지의 세계들이 서로 연결되고 멀고 가까운 나라들의 방문이 잦아지면서 나라의 문들이 열렸다. 그 문 역할의 한 것이 바다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대부분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던 문물들이 개항과 함께 강제로 열린 부산, 원산, 인천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중 서울과 인접한 인천의 문이 가장 활짝 열렸다. 자연히 낯선 이국 문물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접하는 창구가 되었다.

개항과 함께 발전하기 시작한 인천은 유독 대한민국 최초, 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다. 1899년 9월 18일 오전 9시 증기기관차 모갈(Mogul) 1호가 흰 연기를 내뿜었다. 서울 노랑진역에서 출발, 경인선의 시

발이 되는 인천역을 향해 출발하는 한국 최초의 기차였다. '불로 가는 화차라 하여 당시의 사람들은 화률키라 부르던 이 열차는 지금까지 110년 대한민국 철도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최초의 고속도로가 뚫린 곳도 인천이요, 한국 최초의 서구식 공원(자유공원)이 설립된 곳도 인천이다. 클럽과 커피숍, 야구 및 축구 역시 인천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문화적 유산으로 남아 있는 한국 최초의 짜장면 및 대

한민국 최초의 '스타 사이드'가 탄생한 곳도 인천이다. 한국 최초의 호텔인 대불호텔과 최초의 영화관

인 애관이 세워졌고 팔미도 등대가 세워졌다.

또 인천의 조선기계에서 생산한 물품들로 만든 최초의 잠수함이 만들어진 곳도 인천이다.

열강들의 각축전 끝에 한양과 가까운 인천이

열리게 되고, 세계 각국의 배들이 인천항에

닿으면서 생긴 현상이다. 인천엔 낯선 외국인

뿐 아니라 낯선 문물들이 함께 쏟아져 들어왔

다. 인천의 인구는 급격히 불어났다. 이주해

온 일본인이나 각 나라의 사람들도 많았지만

물자를 따라 몰려드는 내국인들이 엄청 났다.

인천의 급격한 인구 유입은 많은 부작용을 초

래했다. 낙후된 위생 환경과 많은 인구가 배

출하는 오염 물질은 식수원을 오염시켰다. 식수가 부족했고 수인성 전염병이 자주 발생했다. 일본 지배

하의 정부에서는 한강을 수원지로 하는 수도를 설계하였다. 이로써 인천에 한국 최초의 상수도 시설이

만들어지게 된다. 노량진 상수원에서 취수한 물을 인천까지 끌어오기 위해 만들었던 수도길은 인천항

에서 서울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수도국박물관 주위에는 이때 만들어지는 배수지가 아직

사용 중이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최초의 목적도로였던 이 수도길은 인천과 김포 서울을 연결

하는 직선도로로서 한국 전쟁 당시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 북한군이나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했던 미군

들이 이 길을 따라 서울로 들어간 길이다.



1899년 9월 18일 운행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열차, 모갈(Mogul) 1호



1964년 촬영한 한국 기계의 전경. 전쟁무기의 부품을 만들기 위해 세워진 조선기계(한국기계 전신)는 한국에 세워진 최초의 중공업회사다. 1943년 이곳에서 잠수함 마루유가 최종 조립되었다.

### III. 신문물의 보급 장소, 부평

인천부에 속해 있던 부평 역시 그 역사적 환경을 비껴갈 수 없었다. 대부분의 지역이 농경지라 부평평야로 불리었던 부평 지역은 서울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관계로 인천과 더불어 개발이 시작되었다. 내륙의 평야지대에 위치했던 부평은 인천 중심부와 달리 물류의 생산과 집하장으로서 기능했다. 일제 강점기 시대의 일본은 바다와 가까운 너른 평야 지대의 이점을 살려 부평에 무기를 생산하는 육군조병창을 세웠다. 바다로 들어온 물품과 바다를 통해 나가야 할 물품들을 보관하고 운반하기에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일본 육군이 병기창으로 사용한 일제시대의 병기창. 일본은 중일 전쟁을 위해 부평의 대부분 지역을 이 병기창으로 확장했다.

때의 기술력을 발전시킨 덕분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일제 말 부평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군수 공장을 확대하면서 이곳은 일자리를 찾아 온 노무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어졌다. 미쓰비시공업(三菱



해방 전 육군조병창 시설로 미쓰비시(삼릉)사가 운영하던 공장. 육군조병창은 고철이나 스크랩을 수집 가공하여 무기를 만들던 공업단지였다.

일제가 부평일대에 설치한 육군조병창은 우리나라에 설립된 최초의 중공업단지였다. 즉 중일전쟁 당시 이곳에서 생산한 무기를 일본군에게 전달하던 무기 공급처였던 셈이다. 이때 전쟁무기의 부품을 만들기 위해 세워진 조선기계(한국기계 전신)는 한국에 세워진 최초의 중공업회사다.

처음에는 히로나카 공장에서 제품을 조립 생산하던 것을 1940년 일본기업인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이 인수하여 사세를 확장했다. 현재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한 미쓰비시는 그때의 기술을 발전시킨 덕분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일제 말 부평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군수 공장을 확대하면서 이곳은 일자리를 찾아 온 노무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어졌다. 미쓰비시공업(三菱工業社)에서는 이 주변에 사택을 지어 제공했는데 이 지역이 부평의 중심에서 벗어난 동수역 주변(현재 부평2동)이다. 아직도 이곳 주민들은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는 삼릉이라는 지명을 쓰고 있다.



앞쪽 검은 선이 경인국도. 이 국도의 뒤편마을이 삼릉이고 그 뒤 철로 뒤편이 현재는 부평공원으로 바뀐 군수공장이다.

일본 패망 후 한국군은 일본이 무기를 만들던 조 병창자리에 병기창부대를 주둔시킨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천을 잃어버린 한국군은 UN군의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한 미 해병대에게 이 자리를 내준다. 이처럼 부평은 한국 전쟁 후 주한미해병대 지원사령부(ASCOM)가 위치한 도시가 되었다.

전쟁이 끝나자 부평에 주둔한 ASCOM은 대규모 후방기지로 그 역할이 변모된다. ASCOM은 인천항을 통하여 들어온 물자를 주한 미군부대에 재 보급하고 북한군과의 전투로 파괴된 부평을 재건 하였다. ASCOM은 부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주둔지역을 넓혔다.

Camp Market, Camp Grant, Camp Tyler, Camp Hayes 등으로 구성된 ASCOM에는 비행장뿐만 아니라 운송대 수중중대, 주한미군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걸쳐 가야 하는 보충대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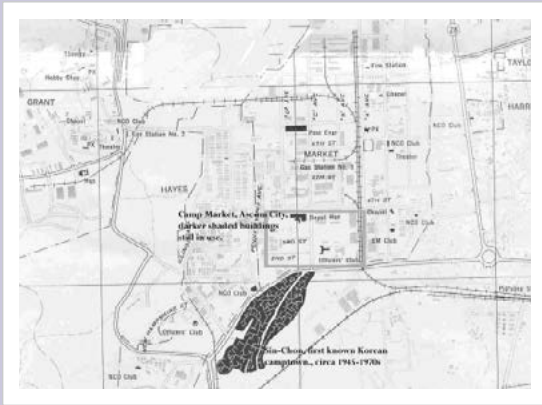
삼릉에 지어졌던 줄사택. 미쓰비시의 임직원이 살았던 집은 이렇게 기와가 덮인 집이었지만 그 변두리에는 판잣집이 늘어서 있고 그 끝에 공중변소가 있었다.



2001년 인천지하철 개통으로 삼릉이라는 이름 대신 동수라는 옛 지명을 회복한 동수역



1970년대 초까지 주한 미군 및 한국군의 물품조달을 맡으며 후방기지로 활용되었던 미군보급부대 ASCOM



1970년대 발행된 ASCOM 지도



1970년 미 공군이 오산기지로 이동하기 전까지 사용하던 ASCOM 내 군사비행장. 현재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경남, 한양아트 단지가 되었다.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향락가였던 다다구미 골목. 이제는 한가한 주택가로 변해 있다.

특히 121부대는 동남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던 병원부대였다.

당시 미국에서는 주한미군의 보급을 위해 실제 소용량의 7배를 보냈다고 한다. 의식주 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모든 문화적 욕구까지 해결해야 했던 곳.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물질적, 정신적 재화가 쏟아 부어진 곳이 바로 이 부평이었다. 미군보급창이 들어서자 부평이 비교적 풍요로운 곳이라는 소문이 삼시간에 퍼졌다. 그러자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당시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치고 미군부대와 무관하게 생업을 꾸리는 사람은 없었다. 일본이 패망과 함께 철수하면서 다다구미란 회사가 티를 다져놓은 지금의 백운역 근처 공터에 수백채의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며 '신촌'이라는 마을이 생겼다. 이곳은 유흥가가 되어 미군을 상대로 한 매춘 향락가 뿐 아니라 현재의 이태원을 상상하게 하는 상가들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지금도 부평에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로들이 늘어서 있다. 당시 미군부대로 들어가는 철로들이었다. 이 철로 위로 보급품을 실은 수많은 기차가 오갔는데, 부대로 들어가는 기차에는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들러붙어 물품을 약탈했다고 한다. 심지어 기차에 실려 있는 차의 변속기까지 뜯어내 논바닥에 던질 정도로 한국인의 약탈이 심했지만 망을 보던 한국군은 묵인한 채 기차를 앞으로 뺐다 뒤로 뺐다 하며 시간을 끌어주었다고 어린 시절부터 부평





경인도로를 가로지르며 아파트 뒤로 나 있는 철로. 표지판의 신촌이란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아는 부평 주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ASCOM 북부에 세워진 새나라 공장(대우자동차 전신)에서 새나라 택시가 출고되는 장면

삼릉에서 살았다는 김용선 씨는 회고한다. 이렇듯 일제 강점기에 생겨난 일본의 조병창(병기 제조창)은 해방 후 그 뒤를 이은 한국군의 보급창으로, 한국전쟁 발발 후에는 주한 미군해병대의 군수를 담당한 ASCOM으로 이어지다가 미군의 철군 이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전용공단이 들어서게 된다. 그 물류의 생산과 보급의 특성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개화의 선봉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것들을 선점하며 지리적 역사적 환경과 어우러지면서 태어난 것이 부평의 문화다. 이제 그 역사 속에서 태어난 부평의 문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아파트 숲에 둘러싸인 채 남아있는 Camp market 모습. 조금만 손을 보면 근현대사를 증거하는 현장 자료로서 박물관으로 활용하여도 좋을 듯하다.

#### IV. K-POP의 요람, 부평

개항과 더불어 유입된 문물은 기계 및 문명의 발달 뿐 아니라 전통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던 우리 민족에게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연극이며 영화가 도입되었고 오음계로 구성되었던 우리의 민요 및 농요 중심의 가락대신 일본의 대중가요였던 엔카의 영향으로 트롯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대중가요로 자리를 잡았다. 구미(歐美) 춤곡의 한 장르였던 폭스트롯에서 시작된 이 장르의 음악은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 음반 산업과 라디오 방송으로 인해 급속히 번져나갔다.



동수역 3번출구 이 앞에 당시 연주인들은 경인지역 미8군클럽으로 공연을 하기위해 모였던곳으로 당시 음악인들에게는 추억의 장소로 기억된다.

그 후 광복과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 주둔한 미군에 의해 또 새로운 장르의 곡들이 나타났다. 1961년 한명숙의 "노란 샤쓰 입은 사나이"가 히트를 치는 바람에 일반인들은 물론 택시 운전기사들에게까지 유행이 번져 노란셔츠를 입고 운전하는 운전사들의 모습도 많이 눈에 띄던 시절이 있었다. 같은 해 최희준은 "내 사랑 주리안"과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로 인기를 누렸고 1963년에는 현미가 허스키한 목소리로 "밤안개"를 불러 공전의 히트를 쳤다.

이러한 음악의 유입 창구가 바로 부평에 있던 ASCOM 이었다. 부평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

하고 있던 ASCOM은 부평 뿐 아니라 전체 주한미군의 물자 및 인력을 담당하던 부대였다. 마침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붐을 일으키기 시작한 락앤롤 음악이 ASCOM을 통해 들어왔고 한국 젊은이들을 열광시켰다

“비록 음악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열악했지만 주크박스에서 들리는 음악을 들으며 악보를 적고 이웃에서 시끄럽다고 하는 바람에 이불을 덮어쓴 채 악기 연습을 했다”고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키보드 연주자였던 김청산 씨는 그때를 회고했다.

현재 동수역 3번 출구가 앞. 그곳에 있던 삼릉당구장을 기억하는 음악인들은 많다. 그곳이 미군클럽에서 연주하는 악사들이 집합하는 장소였다.

“그 길을 따라 하숙집들이 죽 늘어서 있었어요. 대부분 7~8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밴드들이 무리지어 하숙을 했지요. 그 곳은은 대부분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라 마당에 모여서 연습을 해도 시끄럽다는 불평을 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김청산 씨는 ASCOM 내의 하우스 밴드가 되려면 미군들이 하는 오디션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그 때 열심히 했던 선배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K-POP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당시 무대에서 공연했던 선배 가수들로 윤희기, 조용필, 날개를 부른 허영란, 박한란 씨들을 기억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음악적 역량을 키운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K-POP이 있게 된 거예요. 지금 한류 문화로 각광받는 것에 비해 요즘 대중음악 초기의 연주자들에 대한 대우는 미약한 편이지요.”

당시 미8군의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은 음악적 역량을 인정받는 일이라 정말 열심히 연습했다는 김청

산씨는 나이가 들면 더욱 능숙하고 농익어가는 것이 예술인데 문화 선진국인 타국에 비해 예술인의 생명이 짧은 우리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예산 없는 예술인복지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미군들로 이루어진 부대 소속의 GI 밴드는 새로운 곡들을 들여오는 창구였다. 그들과의 연주를 통해 그들을 넘어서기 위해 열심히 한 결과 그들을 넘어서는 특A급의 가수들이 나타나 미군들을 열광시켰다.

특히 신중현은 1960년대 초 미8군 쇼 무대에서 활약하며 주옥같은 곡을 많이 선보였다. 63년에 "빛속의 여인", "커피 한 잔"등을 발표했고 에드4라는 그룹을 조직, 서정길(보컬), 한영현(베이스기타), 권순근(드럼)과 함께 이 그룹을 이끌어 갔다. 이때 같은 등급의 <키보이스> 활약도 두드러졌다.

1968년도에 ASCOM에서 공연했던 <사랑과 평화>의 보컬 이철호 씨는 "한국 락 기타의 귀신"이라는 별명을 들던 인천 출신의 김홍탁이 리더로 활동하던 <키보이스> 역시 특A급 밴드 중의 하나로 꼽혔다. 최현, 윤항기 등과 <키보이스>를 이끌다가 <He6>를 이끌던 김홍탁 씨는 서울재즈아카데미를 창립 후학을 양성한 인물이다.

"미8군 무대에 섰던 음악가 중 <서울 패밀리>의 리더였던 기타리스트 김재덕 씨도 부평을 대표하는 음악인이지요."

현재 부평에 살며 8집 음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랑과평화>의 보컬 이철호 씨는 음악인들 중에 부평 사람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의정부, 동두천, 문산, 송탄, 과주, 부산, 대구 등 한국에 주둔한 미8군 산하의 캠프를 비롯한 그 주변에는 클럽수가 264개나 되었으며 이곳에서 벌어들인 돈이 연간 120만 달러였다고 한다. 당시 우리나라가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100만 달러 내외였음을 상기해보면 '미8군 쇼에서 활동하던 연예인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끼친 영향이 지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엄격한 오디션을 통과해야 출연할 수 있던 미8군 무대에서 활약한 김시스터즈, 김보이즈, 패티 김, 이금희, 서수남, 코리안 키튼즈의 윤복희, 한명숙, 임희숙, 신중현 등은 지금까지 가창력을 인정받고 있는 가수들이다.

미8군 쇼는 당시 가수들이 선망하는 최상의 무대였다. 20대의 나이에 8군 무대에 16인조 악단 트로바더스를 이끌며 연주했던 차영수씨(파이오니아 리더,70세)는 1970년대 초 미군 감축으로 축소될 때까지 ASCOM에 4개의 장교 클럽을 포함해서 12개의 클럽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예전에는 삼릉을 JV(Japan Village)라고 불렀어요. 그곳에서 문학, 군포 미사일 부대 등을 포함해 보통은 하루에 16개 악단이 출발했지요. 악기와 연주자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요즘으로 말하면 하이리무진 같은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당시 삼릉에 있던 삼부약국 앞에서부터 길을 따라 죽 늘어섰던 수송 차량을 타려고 늘어선 모습은 장관이었지요."

연주자들은 삼릉당구장에 악기를 맡기기도 하고 연습하다 쉴 때면 당구를 치거나 옆에 있던 탁구대에



ASCOM 앞, 신촌에 세워진 부평공원. 이 앞쪽에 차영수 시가 회상하는 드림보트나 화이트로즈 등의 신촌의 클럽이 있었다. 일제의 군수공장이 세워진 이래 역사의 변환기를 거치며 주민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70년이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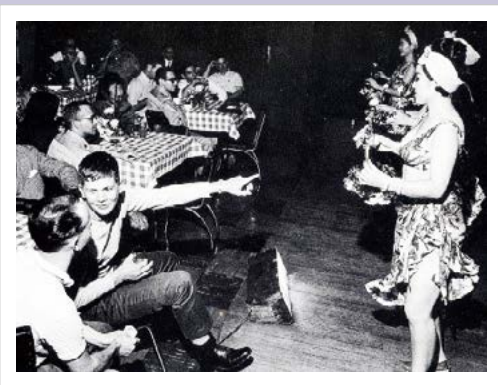
이 많았다고 했다.

당시 부평의 ASCOM 앞에서 화이트로즈라는 클럽을 운영하기도 했던 차영수 씨는 그린도우, 화이트로즈, 드림보트, 유니버설 등 악단이 연주하는 다운타운 클럽이 용산보다 많았고 그 중 컨트리 음악을 연주했던 세븐 클럽은 미군장병들이 유난히 좋아했었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또 미군부대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오디션을 보려면 당시의 엔터테인먼트사를 통해야 했으며 그들은 실력을 갖춘 연주자나 가수를 선발해서 오디션을 볼 수 있도록 주선했다고, 당시 화양, 유니버설, 동일 등이 있었는데 이런 오디션 문화가 지금의 K-POP 문화의 뿌리가 되었다고 확신했다.

서 탁구를 치기도 했다고 그는 회상했다.

“당시에는 분기별로 공개오디션을 거쳐 실력을 인정받아야만 미군부대의 무대에 설 수 있었어요. 오디션에서 부여받은 레벨은 음악인의 가치이며 거기에 근거해 실력자들은 충분한 보수를 보장받았지요.”

당시 그가 이끌던 트로바더스 악단은 최고 등급을 받아서 UN감시단이 있던 장성급 클럽(속칭 장삿배리)에서도 공연을 했다며 부평에 있던 ASCOM이 미8군 무대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가장 컸다고, 그 영향인지 연주 잘 하는 사람들을 보면 유난히 인천이나 부평사람들



미군부대 클럽에서 공연하는 황규현(애원을 부른 가수)과 그의 밴드

이처럼 ASCOM 내의 미군 클럽들이 문을 여는 시간이 가까워오면 삼릉 대로변에는 악사들을 태워 갈 미군의 차량들이 당도했다. 부평은 물론 인근 경기도 의정부와 오산 지역 미군클럽까지 악단들을 태우고 가기 위해 그 부대에서 나온 차들이었다. 악단들은 자신들이 공연할 부대의 차들을 타고 출발했다가 공연이 끝나면 다시 이 차를 타고 와 삼릉당구장 앞에 내렸다. 통행금지가 있던 시대였고, 또 대중교통의 발달이 미흡했던 터라 미군들이 수송까지 담당하던 이곳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건 당연한 이치였다. 삼릉 주변은 이렇게 모여든 악사들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악사들이 모여 사는 독특한 지역이었다.

당시 이들을 실어 나르던 차량에는 대략 7~9명으로 구성된 악단이 탑승했으니 대략 150여명 내외의 악사들이 삼릉과 신촌 그 일대 주변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평에서 태어나 ASCOM 클럽에서 공연을 했던 김진호(전 에그린음악학원장, 70세) 씨는 치안국 악단(현 경찰대학악단)장에 의해 발탁되어 무대에 선 경우다.

“치안국 악대에 근 50여명의 단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악단을 꾸려 ASCOM에서 연주를 했어요. 나는 거기 소속 악단장에 의해 발탁되어서 오디션을 봤어요. 오디션 결과, 등급 별로 장교클럽이나 사병클럽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요. 나도 당시 오디션에 합격해서 ASCOM의 55부대, 121부대 등에서 연주했어요. 그 때 삼릉 당구장 앞에는 각 부대에서 연주할 연주자들을 데려가기 위해 나온 미니버스와 트럭들이 줄을 섰어요. 나도 평택의 비행부대, 과주의 기갑 사단 등을 다녔지요. 지역 부대로 가면 대부분 한 달간 연주하고 또 다음으로 옮기고 했어요. 당시의 오디션문화가 현재의 K-POP문화로 이어진 것 같아요.”

미8군 무대에서 공연했던 악단들을 하우스밴드라 했고 부대 밖 클럽에서 연주하는 밴드를 동네밴드라고 불렀다며 그때 유명한 클럽이 신촌 쪽의 아리랑 클럽과 드림보트, 삼릉의 유니버설 클럽과 블랙로즈 등이었다고 회상하는 김진호 씨는 그 후 일본에서 들어온 리듬박스가 들어올 때까지가 연주자들의 전성기였다고 말했다.

“미8군의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는 최고의 대우를 받던 연주자들이 미군의 감축으로 갈 곳을 잃었어요. 신신카바레, 아폴로, 모두랑, 풍차 등같은 고고홀에서 공연을 하거나 비어홀처럼 막걸리 홀이라는 형태의 술집에서도 공연을 했어요.”

그는 1980년대에 포크송, 피아노, 기타, 타악기 등을 가르치는 상록음악학원을 열어 후학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부평에 퍼져있던 대중음악의 인프라가 풍부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초등학교시절 타이니다츠(TinyDoz)라는 가족 악단 멤버로 미8군 무대에서 공연했던 차경수 씨(울리브 요양병원장, 67세)는 공연을 위해 전국에 흩어져 있던 미군부대를 찾아다니며 공연을 했다고, 미군부대의 클럽에서 공연을 할 때면 120명 정도의 관객들이 몰려들었다고 그 시절을 회고했다.

“ASCOM 주변의 신촌 지역에만도 2,30개의 클럽이 있을 정도였어요.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들

이 모이다 보니 이곳은 대한민국 가요의 중심지가 되어 당시 유행하던 LP판은 이곳에 다 있다고 봐도 좋았지요. 미8군에서 유명했던 드러머 김재실 씨를 비롯해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밴드의 키보드연주자였던 김청산 씨, 가수 이승재 그리고 이봉조 씨 등 내로라하는 음악인들이 이곳에서 노래하고 연주를 했어요.”

권투선수 홍수환과 한 집에서 지내며 우정을 나누었다는 차경수 씨는 홍수환 형제가 음악적 재능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의 동생 홍수철이 가수로 활동한 것도 늘 ASCOM을 통해 새로운 음악을 접했고 즐겨 불렀기 때문으로 본다고, 홍수환은 자그마한 체구임에도 온 몸으로 리듬을 탈 줄 알았기 때문에 몸을 흔들다가 틈을 노리는 권투를 해서 챔피언이 될 수 있었다고 했다.



ASCOM에서 주한미군을 상대로 펼쳐진 위문공연

이렇게 ASCOM 시절에 음악을 했던 여러 선배님들과 인터뷰를 하다 보니 비로소 당시의 상황이 이해가 되었다.

ASCOM이 세워진 초창기에는 연주자 개인이나 팀이 개별적으로 클럽과 교섭하여 쇼를 벌였다면, 공급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하면서 미8군 쇼 무대에 한국 연예인을 송출하는 용역업체들이 등장했다. 이때 생긴 회양, 유니버설, 삼진, 공영 등의 용역업체들은 산하에 쇼 단체들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다. 경쟁이 치열했던 이유는 미군 당국이 쇼에 대한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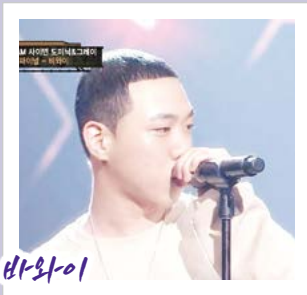
즉, 오디션이 엄격했기 때문이다. 각 쇼단은 보통 6개월마다(차영수 악단장은 3개월로 회상한다), 미국에서 직접 파견된 음악전문가들이 심사하는 엄준한 오디션 절차를 거쳐 더블A, 싱글A, B, C 하는 식으로 등급이 매겨졌는데, 기득권이나 명성은 전혀 통하지 않아 탈락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오디션에서 좋은 등급을 받으면 무대와 함께 높은 개런티가 보장되는 것이었으니 그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매일 15개의 공연 장소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던 ASCOM. 그리고 그 주변의 다운타운 클럽에서도 연주할 악단이 필요했던 곳이 부평이다. 최소한 100명에서 200명의 음악인들이 ASCOM 앞을 드나들었다는 얘기다. 그 곳에 있는 최고의 무대를 확보하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열심이었을지 짐작이 간다. 지금의 소녀시대나 아이돌그룹들의 연습량이 많다고들 하지만 그 때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다. 단연코 지금 K-POP의 뿌리라 할 만하지 않은가.

1970년대 중반(공식적으로 1973년 6월30일 ASCOM 종료) ASCOM이 감축,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부평 주변에서 미군을 상대로 장사를 하던 기지촌상인들도 미군들을 따라 용산으로 옮겨갔다. 그 옮겨간

상인들이 일군 것이 지금의 이태원이다. 물론 그 전에도 상가가 있었지만 오늘날의 이태원을 이룩한 것은 부평에서 옮겨간 상인들의 공이 컸다고 한다.

이렇게 개화와 함께 일본의 병참기지 자리에 주둔하기 시작, 2000년대까지 부평에 자리잡고 있던 외인 부대는 부평의 현대사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부평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발상지라 할 수 있다. 대중음악의 공연장이던 미8군 쇼의 무대에 오르기 위해 수많은 음악가들이 집합했던 장소. 새로운 장르의 음악인 재즈나 POP ROCK 등을 부르던 가수와 악단들의 집합처이자 현재 한류의 효시가 된 K-POP을 작곡하고 연주한 문화의 장소였다. 공연관계자들이 생겨났음도 물론이다. 지금처럼 대규모의 엔터테인먼트는 아니지만 수요가 있었기에 음악인들을 관리하는 공급책이 있던 곳이었다.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 회자되는 부평 출신의 음악가는 셀 수 없을 정도다. 구창모(동초동27회), 최성수(서초동25회), 유심초(서초동 24,26회), 백영규(동초동17회), 이훈만(동초동31회), 홍수철(서초동21회), 정유천(산곡초17회), 파이오니아(미8군 클럽밴드), 서울패밀리의 리더 김재덕, 이승재와 주주클럽의 주다인, 코요테에서 활동하는 신지, 박기영,디아등이 있다. 최근 활동하는 가수로는



바와이

부평출신 힙합가수로 2017년 제 14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랩&힙합 노래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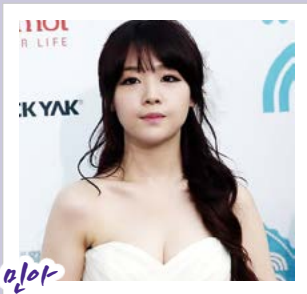
상이

부평출신 힙합가수로 제30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베스트 R&B 힙합상을 수상 하였다.



남지현

부평출신으로 계산여중 출신 아이돌그룹 포미닛의 멤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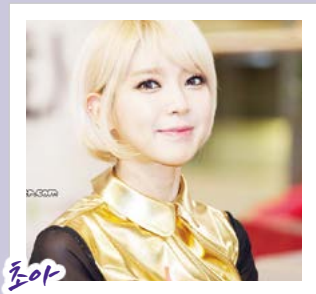
민아

북인천여중 출신으로 아이돌그룹 걸스데이 멤버.



려욱

부평구 산곡동 출신으로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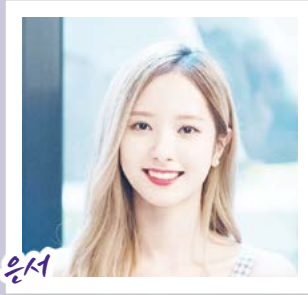
동아

부평출신으로 산곡남초, 가정여중 졸업. 아이돌그룹 AOA멤버.



김지

부평출신으로 부원초 부원여중 졸업. 아이돌그룹 피에스타 멤버.



은서

부평출신으로 부천일신중 졸업. 아이돌그룹 우주소녀멤버



슬리피

부평구 부개동 출신으로 힙합듀오 언터처블 멤버.

모두 부평출신 음악인들이다.

또 서울의 홍대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인디밴드 문 화와 클럽문화 역시 그 맥을 잇고 있다. 1996년 블루스파크를 시작으로 락캠프,루비살롱, G7등 인디밴드가 공연하는 라이브클럽들이 인천에서는 부평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고 현재 부평에서 활동 중인 밴드로는 KBS 드라마 '추노'의 OST를 부른 글루미씨티스를 비롯해서 에스킵프로젝트밴드, GUTZ, 예술빙자사기단, 경인고속도로(포크트리오), 블루니어마더, 꼬리물기, 사이키문, 베드랩, ROZE, 크로키, 에이스원 현재 부평올스타빅밴드단장과 인천밴드연합회장을 맡아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정유천의 정유천블루스밴드 등 다수의 밴드가 활동 중이다.



부평 소재 락캠프에서 연주 중인 GUTZ



드라마추노의 삽입곡을 부른 글루미씨티스의 공연장면

게다가 삼익악기, 영창악기, 콜트 기타 등의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악기 공장이 유독



부평에 몰려 있다는 것 역시 단지 우연만은 아니라고 본다. 현대 대중음악사에 있어서 부평의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여 이제 부평은 그들이 남겨놓은 문화적 유산을 발굴 계승하여 대중문화 예술의 체계를 세워야 한다.



정유천블루스밴드 ASCOM BLUES FESTIVAL 공연 모습



부평출신 연주인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부평올스타백 밴드의 공연장면

## V. 음악도시 부평으로

문화의 향유는 1차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상태, 즉 경제적인 욕구가 충족된 후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전쟁의 상처를 벗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70년대를 지나 올림픽을 유치한 80년대 들어서 문화, 라는 콘텐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본격적인 문화적 향유를 누리기 시작한 것은 90년대부터라 하겠다. 이 시기에는 각 지자체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문화라는 단어가 보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각 지역의 문화축제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 정부 및 지자체들 역시 문화시설들을 확충하고 관 중심의 축제들을 유치하고 있는 추세다.

삶의 질을 높이고 즐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각 지역의 문화축제나 문화시설을 보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요즘 문화축제나 문화시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축제를 모방하거나, 실적 위주의 관 주도적인 형태로 보급되어千篇일률적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변별력 없는 지역 축제야 말로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그나마 문화라는 콘텐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역민들에게 식상한 인상을 주어 축제 문화를 외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역 축제의 양적 성장 시기였다면 이제는 질적 성장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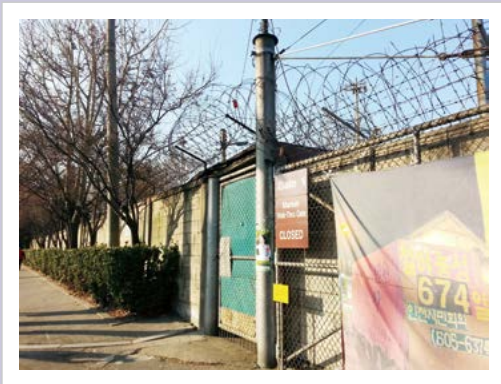
지역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기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지역문화의 질적인 전화와 구조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문화의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다각적

인 시각에서 문제점을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지역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나가야 한다.

이제 부평의 근현대사를 통해 다른 지역과 변별되는 부평 고유의 문화인프라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부평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다른 지역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문화 인프라를 도출해낼 수 있다.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고향이자 뿌리라 할 수 있는 부평. 더 늦기 전에 이 지역 원로 음악인들을 찾아내어 부평의 현대사를 정리해야 한다. 이들 산 증인들은 문화 인프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인터뷰를 위해 그 세대를 기억하는 원로 음악인들을 찾다 보니 벌써 세상을 떠신 분들이 많았다. 오래 머뭇거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서둘러 진행하여야 할 일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으로 아니 전 세계로 퍼져나간 대중음악의 원류도시인 부평의 위상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뿌리가 살아있는 명실상부한 음악도시, 부평을 부활하는 일에 뜻 있는 부평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깊이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ASCOM 내에 있던 마지막 기지인 캠프마켓도 완전히 멀지않아 반환받을 예정이다. 이 기지를 반환받은 후의 대책도 의식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100여년의 근대적인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ASCOM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문화적 자산이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근대적 군사도시로서의 고유한 모습들을 최대한 활용, 지금까지 어느 곳에도 없는 대중음악 박물관 및 전근대 군사 박물관 등으로 활용한다면 부평 문화의 한 축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캠프마켓의 1번 게이트.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이다



아직 남아 있는 미군기지 캠프마켓

역사란 밝은 면만 찾아서 흐르는 물결이 아니다. 어둠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 세계적 명승지로 전환되는 것은 이미 흔한 일이 되어 버렸다. 이렇듯 이제는 역사의 물결이 흘러온 자취를 바로 바라보고 후대로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일이 이 역사의 흐름에 동승한 현재 우리들의 책임이 되었다. 역사는 변한다.



## “아파트 한 바퀴 돌기 - 1991, 우리시대 비평가들”

글. 이장열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2동 514번지 B 주소지에 전화번호는 68-0126. 제조년월일: 84.1. 가격 표시가 있는 얇은 공책 뒷 표지다.

나는 2012년 8월 9일 오전 9시. 정확하게 20분 13초에 이 공책을 발견했다. 제조년월일 '84'에 먼저 눈이 간다. 1984년이라. 84년도에 생산된 공책이다 그 시절에 공책이 책(冊)인지 몰랐다. 공책이 필요해 공책을 구입한 것 밖이다. 공책의 단어의 뜻을 오늘 오전 10시 무렵 알게 됐다. 오늘 10시 이전에는 내가 사용하는 단어를 속에는 공책은 사라졌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단어였다.

나는 공책을 어디에서 빼냈는지 생각했다. 도무지 이 공책이 내 손에 오기까지 어디에 있었는지 종잡을 수 없다.

‘그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쓸데 없는 데에 에너지를 쏟나?’

나는 공책을 열어 제쳤다. 시간표가 보였다. 1교시에서 10교시까지. 교과목, 강의실, 교수명. 나는 생각했다. 내가 이 공책을 어디에서 구입했지. 아니 언제 구입했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다.

취루단 알갱이들이 눈 속으로 박혀 있는 와중에 들렸던 학교 앞 문구점에서 그 다양하게 전시된 필기구를 닦을 놓고 한참 동안 보았던 대학 신입생 때 촌스러운 내 모습이 짙막하게 지나갔다.

다음 장을 넘겼다. 샤프로 쓴 영어 단어가 나왔다. Concentric. 도대체 내 공책에 누가 영어단어를 썼지. 내 필체가 분명 아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사람이 쓴 글씨체다. 어떻게 내 공책에 필기를 한 것일까.

‘뭐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쓸데 없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영어 단어 끝에는 utterly(완전히)가 놓여 적혀 있었다.

다음 장을 넘겼다. 신문 스크랩이다 <한겨레신문> 1991년 10월 15일(화요일)<7>자가 칼로 오려서 폴에 붙어 있다. <전망대-정운영>. 담배인지 뭐지 모르겠지만 정운영(논설위원)의 캐리커처에 손을 쥐고 있는 제목 크기만하게 그려져 있다.

‘나는 정운영은 죽었을 것이라고 믿었다. 안토니오 그람시가 죽었듯이, 1991년에 캐리커처 그림에서도 단박에 봐도 50-60대로 보이는데, 죽지 않았으면 뒷방 영감이 되어 있겠지 뭐.’

‘뭐 중요한 부분도 아닌데’

2012년 8월 9일, 한낮에 1991년 10월 15일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덤을 파보는 듯하다. 자세히 보면, 그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이 담배는 아니고 필기도구다. 당시 나는 담배로 생각했다. 목까지 올라오는 목 티를 입은 것을 보니, 겨울에 그림을 그렸다. 그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잡이임이 틀림없이 보였다.

그는 1991년 10월 15일 화요일 아침에 독자들에게 그람시를 읽어보라고 권했다. 친절하게 <그람시>(두레, 1991) 책도 소개하고 있다. 누군가는 또 이 기사를 보고, 사회과학서점으로 달려가 돈을 지불하고 책을 구입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나는 이 책을 구입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기억한다. 나는 2012년 8월 9일 오전에 이 기사를 보고, 놀라운 것은 그가 왜 ‘맑스’로 표기하지 않고 ‘마르크스’라고 쓰고 있는가였다. 나는

표기가 문제라고 생각했다. 마르크스는 일본식 발음을 그대로 따와서….

‘에이. 이게 무슨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그의 글에는 2012년 8월 9일에는 진지전과 기동전, 혁명 단어보다는 떡갈나무, 도토리 등 낱말이 눈에 들어 왔다. 아직도 진지전이니 기동전이니 그 단어가 뺏어가는 길을 나는 모르겠다. 현재 나는 속도전에서 낙오된 채, 엉금엉금 이 시대를 기어간다.

냉장고 문을 열기 위해, 작은 골방에서 한 걸음만 디디면 나오는 코닥지만한 부엌으로 나갔다. 냉장고 문 앞에 자석에 붙어 있는 설명서와 안내문들이 눈에 들어 왔다. ‘사용해서는 안 될 부정적인 말들’ 목록을 아내는 붙여 놓았다. 자석에 딱 붙어서 움썅달썅도 하지 않는다. 그 금지 단어에는 늘 사용하는 말들이 줄줄이 들어 있다. 나는 빨간펜을 들고 와서, 밑줄을 세 개 긋고 “늘 사용할 말”로 바꾸고 싶었다.

‘냉장고 앞에 왜 서 있지’

반사적으로 냉장고 문을 열고, 맥주캔을 집어 들었다. OB라이트 1.5L는 대형마트에서 사면 아파트 안에 있는 구멍가게보다 50원이 더 싸다. 어제 구멍가게에 사 둔 것이다. 두 개를 사고 싶었지만, 호주머니는 헐렁했다. 나는 김을 찾았다. 김은 없었다. 물도 꺼집어 냈다. 나는 물로 안주 삼아 먹는 버릇이 최근 생겼다. 안주 삼아 물을 마신다. 썩 좋은 버릇은 아니다.

술이 약한 내 몸 탓이다. 1L하이트 맥주 캔을 땀다. 2,9800원을 마신다. 거품이 조금 올라왔다. 첫 모금은 늘 짜릿하다. 집에 있는 온도계가 섭씨 30도 바로 아래다. 베란다에 있는 이동건조대에는 팬티, 민소매, 경희태권도복, 양말, 아내 팬티가 바람에 계속 흔들린다.

정운영의 <전망대> 기사 뒷면을 올려서 봤다. ‘울진원전 수입시험 가동’까지 제목만 보였다. 울진 원전이 1991년 10월 15일까지는 시험가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다. 현재는 사라진 과거처도 발견했다. 지금은 과거처가 무슨 이름으로 변했나 생각해 봤다.

다음 페이지에는 <우리시대의 비평가 2. 김명인>이다. 1991년 10월 23일(일요일) ‘한겨레’ 신문기사에는 밑줄도 그어져 있었다. 밑줄 친 개수를 세워봤다. 12개다. 황석영씨 소설을 극찬하고 있는 당시 33살의 김명인의 옛뎌 얼굴이 사진 한 장으로 남아 있다. 황석

영은 요즘 뭐하나 꼽십었다. 황석영씨는 작년에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쪽으로 갔다. 대륙횡단 철도이야기와 이명박 대통령을 특별수행했다는 이야기를 기사로 봤다. 이제 그도 나이를 먹었고, 늙었다는 측은함도 밀려 왔다.

김빠진 맥주를 한 잔 더 마셨다. 텅텅하다. 김명인씨는 요즘 무엇을 먹고 살 지 궁금했다. 재빠르게 살고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긴 시간을 두고 읽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지금 내 나이보다 젊다. 누렇게 바랜 신문지 뒷 편을 곧장 넘겼다. 영화관 안내 광고가 나왔다.

은마는 돌아오지 않는다(한국) 서울 277-3011. 성인

아그네스를 위하여(한국) 대한 278-8171. 성인

빨 (한국) 명보 274-2121. 성인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 (한국) 종로2 417-0213. 고교가

황비홍 (홍콩) 국도. 266-1444. 고교가

나홀로 집에 (미국) 단성사 264-3745. 연소자

수잔브랑크 아리랑은 기억난다. 최진실씨가 나온 영화다 최진실씨도 죽었다. 자살이다. 이 영화제목이 '최진실의 아리랑'으로 읽힌다.

전화벨이 울렸다

“집에서 뭐해” 아내의 목소리다.

“밥은 챙겨 드셔. 맥주 사놓았으니 심심하면 마시고”

두껍을 탄 맥주가 앉은뱅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다.

“그래”

“세탁기 빨래도 건조대에 말리고”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세탁기 안을 들여다 봤다. 영킨 옷가지들이 둘둘 말렸다. 옷들을 꺼집어 내어 서로를 안고 있는 옷들을 풀어 해쳤다.

아들 바지, 아들 티, 수건 3개 간단했다. 건조대에 놓을 공간이 남았다 오늘 바람은 건조하지 않다.

## 부평 문예

다음 공책을 넘겼다. <우리시대 비평가들 (9) 염무웅>이다. 1991년 12월 15일(일요일)로 기록된 기사다. 염무웅씨는 2011년 가을 제2회 임화문학상 시상식에서 봤다. 내가 그곳에 왜 가는지는 아직도 여전히 미지수다. 증절모를 쓴 걸 보니, 대머리로 변했다고 직감했다. 느릿 느릿한 목소리와 증절모가 기억된다. 그것 말고는 딱히 기억될 만한 거의 없다. 영남대 교수였다. 1991년도가 50세이니, 지금은 67세. 학교는 떠났을 것이다. 영남대는 박근혜씨가 이사장이고, 사립대학인데, 유신을 반대한 교수가 영남대 교수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가슴이 없는 듯. 아참. 또 있다. 유홍준씨도 영남대에 있었다.

나는 웬지 도망자라고 소리쳐 주고 싶다. 아니 도망자들이라고. 나도 마찬가지로.

한국일보 1991년 12월 9일(월)일자 신문스크랩이 나왔다. <산문시대> 동인 시인 최하림이 <문화인 예술인>이 다음 장에 놓였다. 연보에는 1939년 전남 목포 출생. 시사영어사와 삼성출판사 등을 전전하며 역사, 미술에 경도, 정치학자 최장집, 미술사학자 최한수 등과 친교 등이 기록되어 있다. 왼쪽에는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 왔다. 70년 서울 이문동시절의 최하림씨의 가족 사진이라고 설명이 붙어 있다. 그 사진 속에는 오리튜브가 아이 대신 놀이기구 위에 앉아 있다. 바람이 제대로 들어간 오리다. 날개가 쪽 올라가 있다. 그 옆으로 시인의 가족들이 연결된 포즈다, 자연스러운 포즈다.

나는 어김없이 뒷면도 확인했다. 맥주를 한잔 들이 마신다. 맥주는 이제 1/3 남았다. <궁정동 총소리>(10)이다. 기사 중앙에 박정희 대통령이 손을 들고 있고, 그 오른쪽에는 박근혜씨가 20대 모습으로 함께 걷고 있다. 지금까지도 박근혜의 모습은 똑같다.

늘 우위에 서 있는 박근혜씨의 모습이다. 그 뒤로 김재규가 버려지 같은 놈이라고 부른 차지철 경호실장이 눈에 보이고, 그 옆으로 차지철을 쫓 김재규도 보인다. 차지철은 5.16쿠테타 서울시청 앞에서 30년대 열렬장교의 모습으로 수류탄을 걸고 박정희 소장 뒤에 서서 그때 부릅 뜬 눈빛은 똑같았다. 맨 왼쪽에는 10.26때 4발의 총알 맞고도 기적적으로 살았다는 박상범 경호원도 설명되어 있다. 1975년 10월 14일 영동고속도로 개통식 때 찍은 사진이다.

박근혜는 그 사진에서 유일하게 여전히 지금도 살아 있다. 20대 박근혜는 70년 중반의 경호원들과 군인 장관들에 둘러 쌓여 살았던 청와대에 다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둘러 쌓이는 것을 취미를 가진 것인가. 맥주잔에 맥주를 반쯤 또 부었다. 그리고 다시 20대 박근혜 사진을 보고 마셨다. 섭섭하다.



지겹다는 생각이 밀려왔다. 책을 비우고 싶었다. 당시 신경림 시인(56세)의 인터뷰에서 ‘말장난 경계라는 문구가 나왔다. ‘지금 난 장난하는 것 아니죠. 제 생활이 그래요.’ 평행선——

신영복선생의 인물탐구도 스크랩되어 공책에 기다리고 있다. 지식인들 혼자 잘난척하지 말란다. 그래서 지식인들에게 ‘실천과 연대를 요구했다. 자신도 지식인인데, 지식인들에게 충고한 것은 무슨 일인가. 그의 아버지가 당시(1991년) 80세 넘어서도 밀양에서 선비로서 살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20년의 감옥생활과 그리고 결혼과 아이낳기, 아버지가 고향에 생존해 계시는 이 상황들과 이 진행들이 당시에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지식인들은 지독하다.

<우리시대의 비평가들(4) 임현영(1991. 12.29)> 편에 기다리고 있다. 그에게 한달 전에 메일을 보냈다. 수도권에 왔다고 전했다. 답장이 왔다. 수도권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50세 때 임현영도 청년이었다. 지금은 70세다. 나란히 당시 서울구치소에 있던 박노해(기평) 시인의 ‘그해 겨울나무’ 시도 스크랩되어 있다.

그 해 1991년도 겨울의 기억을 떠올렸다. 박노해의 그 해 겨울처럼 나도 창백했다는 기억이 났다. 잊고 싶은 기억이다 그리고 겪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다. 나에게 그 해 겨울은 패배였던 것이다. 아마도 이 시를 오려서 공책에 붙일 때 서울 성북동 기슭 개운사 자락에 있었던 기억이 ‘그해 겨울나무를 보고 생각해냈다. 서울, 개운사, 1991 겨울에 밑줄을 쳐 보지만 세월의 거미줄은 어느새 바꿨다.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 공책을 덮었다. 반바지를 걸쳐 입고, 엘리베이트에 섰다. 몽계구름 보기가 힘든 수도권 도심의 하늘에는 조각난 구름만 띄어떠엄 보인다. 저 멀리 서울외곽 순환도로도 보인다. 도로 위에 차들이 차레를 기다리는 듯 걸어간다. 휴가철이다.

평동 엘리베이트 문이 열린다. 1층 버튼을 눌렀다. 게시판에는 아침에 보지 못한 전단지 2장이 붙었다. 관리소장 명의다. 엘리베이트 왼쪽 카메라에 찍힌 용의자 사진들이다. CCTV가 자리잡은 엘리베이트 왼쪽 모퉁이에 시선이 자연스럽게 간다.

‘나는 아니에요. 저는 배가 나왔어요’

‘나는 도둑처럼 모자를 쓰지 않았어요’

## 부평 문예

‘내가 왜 이러지. 훔치고 싶은 욕망이 있기는 하나. 훔치는 것은 에너지다. 전단지 절도 용의자들은 남은 물건을 훔치는데 에너지를 쏟았다. 쓸데 없는 데 이 두 절도범은 남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몇 시간이나 시간을 투여했을까.’

24시간을 투영할 만큼 돈을 안겨줄까. 1시간 최저인건비 5,000원이라고 잡아도, 125,000원 이면 70,000원이다. 두 명이니 140,000원이다. 무슨 물건을 훔쳤는지 알 수 없다. 훔친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판다고 해도, 현금으로 환산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일반 가정집에 침범해 물건을 훔친 상황을 보면 한심하다. 비경제적이기 때문이다. 멍청한 놈들이다.

엘레베이트는 1층에 이미 닿았다. 나는 오른발을 먼저 문 쪽으로 내밀고 엘레베이트를 빠져 나왔다. 오른발은 먼저 내밀고 싶었다. 왼발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불편했다. 여중학생이 가방을 메고, 1층 앞에 서 있었다. 왼발을 먼저 내디딘 오른쪽발에 갖다 놓고 다시 오른쪽발은 내디디며 계단으로 향했다. 그 다음은 왼발인지 오른발인지 의식하지 않았다.

50m앞에 어린이 놀이터 벤치에 걸터 앉았다. 하늘을 올려다 봤다. 그 사이에 아파트 베란다에 걸쳐진 텐트에 눈이 들어 왔다.

‘휴가에서 돌아온 모양이군’ 혼자 중얼거렸는데, 그 말이 내 뒤에도 들릴 정도였다 당황했다. 머쓱한 웃음을 지었다. 옆 벤치에 30대 초반 아줌마 2명이 앉아 있었다.

헛기침을 한번 했다. 시선을 놀이터 ‘시이쇼에 두고,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이번에도 오른발을 먼저 내밀었다.

‘다음에는 왼발을...’.

왼발이 오른발 10cm앞에 놓였다.

오른발은 철봉으로 방향을 잡았다. 놀이터를 나가는 방향이다. 내 몸은 이미 아파트 경비실 앞에 있었다. 택배함에 눈길이 갔다. 집에 올 택배가 없었다. 시간이 주머니 속 모래알처럼 흘러 내렸다.

아파트 주차장에 자동차들이 한산하다. 아이들이 자건거를 타고 달린다. 물총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움직임이 꽤 부산했다. 나는 그 사이로 오른발 왼발을 번갈아가며 건넌었다. 해가 벌써 사라진 아파트 오후 6시 12분. 왼손 손목에 찬 seike 시계의 시침과 분침을 봤다.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작은 깃발이 펄럭인다. '칼 갈아요' 60대 중노인이 자전거 뒤쪽에 깃발을 꽂고, 낮은 의자에 앉았다. 60대 중노인의 얼굴에는 느긋함이 묻어 있다. 눈은 반쯤 뜨고 있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잠을 자는 듯 움직임이 없다.

'오늘 몇 개의 칼을 가셨는지요를 묻고 싶었다. 공치는 날이라도 괜찮아 보이는 표정이었다.

아파트 상가 건물이 100m 앞에 보였다. 왼쪽부터 맥스칸치킨, 반찬가게, 순대집, 미장원, 막걸리집이 놓여 있다. 미장원이 세 개가 붙어 있다. 내 뒷머리카락을 만져본다. 이발할 길이는 아니다. 당당하게 걸어간다. 아파트 상가 이발소는 9,000원이다.

아파트 길 건너편 이발소는 6,000원이다. 세 군데 가운데 남자 미용사가 하는 곳에 이발을 한 기억이 났다. 얼마 전 이발을 하고, '얼마쪼하고 만원을 꺼냈다. 내심 3,000원이 다시 돌아올 줄 알았다. 사장은 대답 없이 달랑 천원 한 장을 거스름돈으로 줬다.

'어디냐' 아내가 물었다.

'아파트상가 쪽인데'

'휴가데, 어디로 가야 하지 않냐'

'어딜 가'

'해수욕장'

'지금 이 시간에'

당신 휴가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가야될 것 아니냐'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다.

'그래 가자. 난 지금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지금 집으로 와'

'현이도 즉시 집으로 데리고 와. 현이 놀이터에 놀고 있을 거야. 데리고 오고'

아내 목소리는 전화기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즉시'라는 말에 허둥지둥 발길을 돌렸다. 왼발이 먼저 움직였다. 긴장한 탓이다. 이제 아이를 찾아야 했다. 1603동과 1606동에 사이

## 부평 문예

의 있는 놀이터로 슬리퍼를 끌고 갔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영켜 있었다. 가만히 있지 않아 아이들이 눈에 겹쳐 들어왔다.

‘현은 그곳에 없었다. 현의 친구 ‘철이가 내 쪽 방향으로 오고 있다.

“현 보지 못했나”

“현은 조금 전까지 팽이놀이 했는데, 집에 간다고 갔는데요”

현의 친구 철이는 한무리로 뛰어가면서 말했다.

“철이도 늦기 전에 집에 들어가”

철이는 듣지 못했다.

1606동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곳에 집이 있기 때문이다. 1001동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놀이터에서 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현 왜 울어’

“아빠 민수가 팽이 부품을 망가뜨려서”

“민수야. 현이 말이 맞니”

현이 옆에 있는 민수도 볼이 달아 올라 있었다.

“아저씨, 전 팽이 베틀 하다가 생긴 일이에요”

“그래. 민수야. 아저씨는 너에게 잘못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 아니다”

“아빠, 민수가 내 팽이를 던져서 그래요”

“현, 너 마음도 알겠다. 친구들과 놀다가 발생한 일인데. 그만 울어”

“민수도. 팽이 시합인데, 팽이를 던지고 그러면 안돼”

“예. 그냥 화나서 던졌는데”

“민수야. 앞으로 그러지마. 현이와 사이 좋게 지내야지”

민수는 현이가 우는 가운데 내가 온 상황이 몹시 당황했던 나머지 현이 팽이를 던지는 것을 실토했다.

현이 손을 이끌고 아파트 도로를 걸었다.

“아빠! 팽이 부품이 망가져서, 팽이가 또 필요해. 알지”

“현. 다른 팽이도 있잖니”

“지금 내가 가지는 팽이는 힘이 약해 그래서 더 힘센 팽이가 필요하다 말이야”

“힘이 센 팽이가 왜 필요하지”

“당연하지. 시합에서 이기면 좋잖아”  
 “건데, 이 팽이 비싸. 아빠가 생일선물로 사줘잖아”  
 “힘이 센 팽이가 비싸 모양인데”  
 “나도 몰라. 마트에서 보는까, 힘이 센 팽이는 비싸더라. 내가 잘 관찰했지”  
 “그래. 얼마 정도야”  
 “아빠가 사 주었잖아”  
 “카드로 구입해서 잘 몰라”  
 “얕트 비싸지만, 꼭 이 팽이 다시 사줘야 해. 내일 팽이 베틀 저녁 7시에 마트에서 또 있어”  
 “현. 우리 오늘 저녁에 휴가를 떠날 줄 몰라”  
 “어디로 가는데”  
 “나도 몰라”  
 “아빠가 모르면 어떡해”  
 “난 지금 휴가 중인데. 또 휴가를 떠나야 한데. 엄마가”  
 “휴가는 떠나는 것 아냐”  
 “그래 맞는데, 아빠는 휴가중이다”  
 “휴가중이니까. 휴가 가야지”

현은 내 오른발에 매달려 재촉했다.  
 “현. 휴가중이 아니라, 휴가 가자. 렛츠 고다. 그치”  
 “맞아 아빠. 범수도 자기 아빠랑, 계곡에서 텐트치고 물에서 놀고 왔데”  
 현이는 당장이라도 떠날 것처럼 들뜬 말소리가 빠르고 커졌다. 아파트 안에서 현이 목소리만 선명하게 들렸다.

“지금 갈거지”  
 “갈려면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냥 갈수 없잖아”

해는 빛을 잃었다. 그러나 열기는 그대로 바닥에서 올라왔다. 섭씨 32도는 되겠다. 목덜미에서 땀이 맺히고, 이마에서도 땀이 날 정도다. 오후 7시인데도. 2012년 8월의 폭염은 기록적이다. 이렇게 기록될 것.

## 부평 문예

나는 휴가를 어디로 가야할 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 이곳은 아직은 낯선 데라, 아니 휴가 중이고 싶었다. 이 곳 아파트 정글에서 더위를 피하고 싶을 뿐이다. 이 시기를 휴가중으로 정해서 한발짝도 목련아파트 경계를 넘고 싶지 않았다.

현이 손에도 땀이 차 있지만, 놀이터에서 더 뛰어 놀 기세다.

‘휴가중을 휴가가다로 내 몸 스위치는 눌렀다. 오후 7시 20분이다. 아들이 놀이터를 뛰어가 는 사이에, 벨이 울렸다. 아내다.

‘휴가갈 준비가 안됐네’

“당신이! 아니면 내가”

“우리가 아직...”

아내에게 다음 말을 하지 않았다.(못했다)

“휴가중을 즐기자. 아파트에서 휴가를...” 하고, 엘리베이터 앞에 올라가는 버튼을 꼭 눌렀다.

그리고 작은 골방으로 들어가. 공책 마지막에 스크랩된 <우리시대의 비평가들 김윤식 편>에 펼쳐봤다. 당시 한겨레신문 문화부 기자 고종석(2012. 9.24. 절필선언.)이 김윤식은 ‘쓰다’ 서술어로 특징지을 수 있다는 글들의 단편이 띄엄 띄엄 단추처럼 흘러 내렸다가 단힌다.

공책을 다시 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휴가는 가야 하는 서술어를 아내와 아들이 꾸역꾸역 내 몸속에 배열시킨다. 지금은 2012년 8월 9일 오후 8시다. <끝>

\*후기 : 엉거주춤. 이래저래. 말도 안되는 무미건조함.

## 부평대중음악둘레길

### (1) 부평대중음악둘레길 3코스: 부평 삼릉

미8군 클럽 음악인 픽업(Pick Up)장소 - 부평 삼릉(三陵)



1950년대 이후 부평에 미군부대(ASCOM-Army Service Command)가 본격적으로 주둔하며 영내외 40여 개의 클럽이 생겨났고 삼릉(부평2동)은 1950년대~70년대 중반까지 수많은 음악인들이 꿈과 삶을 찾아 전국에서 모여들던 음악 동네이었다. 당시는 교통이 여의치 않아 미군은 직접 제무씨(GMC) 미군 트럭을 보내 미8군 오디션에 통과한 뮤지션들을 미군클럽으로 출퇴근시켰는데 이렇게 출퇴근을 위해 모이던 장소를 픽업장소라고 불렀으며 바로 이곳 예전 삼부약국 앞이 픽업장소였다. 당시 픽업을 위해 줄 선 트럭이 10여대가 넘었으며 부평뿐 아니라 인근 경기인천지역 미8군 클럽으로까지 음악인들을 실어날랐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음악인들이 삼릉에 거주했는지 짐작해볼 만하다. 미8군부대를 거쳐

K-POP의 원류가 된 1세대 음악인들의 마음에는 부평과 삼릉은 영원히 음악 동네로 각인되어 있을 것이다.

2019. 11. 1(金)

지음 | 정유천(인천밴드연합 대표)   그림 | 조성정(작가)

만듦 | 이장열(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대표)

도움 | 문화체육관광부, (재)지역문화진흥원, 부평구,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인천도시공사

### (2) 부평대중음악둘레길 2코스: 부평 신촌

드림보트 (DREAM BOAT) - 클럽의 전설이 되다



‘드림보’ 부평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불렀다. 드림보트(DREAM BOAT)를 미군들이 부르던 것을 따라 부르다보니 드림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1960~1970년대 부평 신촌(부평3동)에 20여개가 넘는 미군전용 클럽이 있었으나 그 중 가장 규모가 컸고 매일매일 연주되는 드럼, 베이스기타, 기타, 보컬, 키보드 등으로 구성된 밴드의 라이브로 미군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클럽이다. 1970년대 중반 부평미군기지(ASCOM)가 철수와 이전을 시작하며 대부분의 클럽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미군들로 성황을 이루었던 신촌 클럽 거리는 점점 쇠퇴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드림보트만이 부일정육식당이라는 이름으로 그 시절 모습을 간직한 채 화려하고 찬란했던 그 시절 명성을 말해주고 있다.

2019.11. 30(土)

지음 | 정유천(인천밴드연합 대표)   그림 | 조성정(작가)

만듦 | 이장열(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대표)

도움 | 문화체육관광부, (재)지역문화진흥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A·S·C·O·M**  
富平文化

**A·S·C·O·M**  
富平文化

A·S·C·O·M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 13번길 5

ascom.bupyeong@gmail.com

www.ascomcity.com

정가 : 7,000원